

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變化(1968~1976)

——都小賣業센서스를 중심으로——

金 元 銖

<目次>	
1. 序 言	(2) 業種別 店舗當時從業員數의 推移
2. 店舗構造의 動向	4. 年間販賣額의 推移
(1) 總店舗의 推移	(1) 年間販賣額 및 1店當年間販賣額의 推移
(2) 企業形態別 店舗推移	(2)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
(3) 地域別 店舗推移	(3) 常時從業員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4) 主要都市別 店舗推移	5. 販賣効率의 推移
(5) 常時從業員規模別 店舗推移	(1) 總効率의 推移
(6) 販賣額規模別 店舗推移	(2) 規模別 販賣効率의 推移
(7) 業種別 店舗推移	(3) 業種別 販賣効率의 推移
3. 常時從業員數의 推移	6. 商品回轉率의 推移
(1) 常時從業員數 및 1店當從業員數의 推移	

1. 序 言

本稿는 1968년 및 71년에 실시된兩次의 都小賣業센서스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한 韓國流通構造의 68~71년간의 動態的變化⁽¹⁾의 分析에 後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1976년에 실시된 第3次 都小賣業센서스資料를 이에 앞서 실시한 68년의 第1次 및 71년의 第2次의 兩도소매업센서스의 자료와 관련시켜 68~76년에 걸친 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인 變化動向을 파악하고자 試圖한 것이다.

그런데 68년의 第1次와 71년의 第2次 및 76년에 실시된 第3次 都小賣業센서스자료 사이에는 調查內容이나 分類基準 및 調查對象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자료간에 連續性이 없는 것이 많다. 이와 같은 資料간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76년의 보고서에는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은 요인에 따른 68년 및 71년의 計數의 錯誤分이 是正되어 계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本稿에서는 76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筆者：서울大學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 經營大學 教授

(1) 抽稿「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變化 68년 및 71년도 都小賣業센서스를 중심으로」서울大學 商科大學，韓國經營研究所，經營論集，第7卷 第4號 1973, 12 pp. 1~34.

분석하였다.

둘째, 제 1차 및 제 2차 도소매업센서스사이의 기간은 3년이나 제 2차 및 제 3차사이의 그것은 5년이어서 等間隔이 아니다. 따라서 期間別對比를 할 수가 없으므로 本稿에서는 年平均增減率로 換算하여 期間別平均變動을 살펴 보았다.

셋째, 都賣業의 分類基準이 달라져서 종래 이에 포함되고 있었던 貿易業 및 仲介業이 제외되고 一般都賣業만이 計上되고 있어서 68년 및 71년의 都賣店數 및 都賣去來額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76년을 기준으로 도매업의 경우에는 一般都賣業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68년 및 71년의 조사에서는 調查對象을 常時雇傭員이 있는 「가店舗」와 그렇지 않은 「나店舗」로 나누어 調査・集計하였었는데 76년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으므로 調査對象別 店舗數의 推移와 같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68년 및 71년의 양조사에서는 소매업의 賣場面積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76년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總賣場面積, 賣場面積規模別 店舗數 및 賣場面積規模別 販賣額의 推移등을 파악할 수 없다.

여섯째, 產業分類方法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따른 業種別 分析에 制約이 있다. <表 1-1>에서 보듯이 新舊分類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資料의 연속성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한 細細分類의 자료를 再集計하여 비교하려고 試圖하였으나 이러한 면에서 한계

<表 1-1> 新舊產業細分類의 比較(도・소매업)

舊 分 類	新 分 類
一般都賣業	一般都賣業
纖維品都賣業, 衣類・裝身品都賣業	纖維 및 衣類都賣業
農畜水產物都賣業, 食品・飲料都賣業	農產物 및 飲食料品都賣業
醫藥・化粧品都賣業, 化學製品都賣業	醫藥化粧品 및 化學製品都賣業
鑄物・金屬材料都賣業	鐵物 및 家庭用機器都賣業(전기식제외)
機械器具都賣業	金屬都賣業, 電氣機器都賣業, 機械器具都賣業
建築材料都賣業	建築材料都賣業
家具・建具・什器都賣業	달리 분류되지 않는 一般都賣業
其他 雜品都賣業	
小 賣 業	小 賣 業
化學製品・醫藥品 및 化粧品 小賣業	一般小賣業, 醫藥 및 化粧品 小賣業
織物・衣類・裝身品 小賣業	纖維・衣服・신발 및 의복액세서리 小賣業
食品・飲料品 小賣業	裝身具 및 時計 小賣業 飲食料品 및 담배 小賣業
家具・建具・什器 小賣業	個人運輸裝備 小賣業 및 注油所
其他雜品	家具 및 家庭用品 小賣業(家電製品포함) 書籍 및 文具用品 小賣業 家庭用燃料 小賣業 綜合 小賣業

(資料；經濟企劃院, 도소매업센서스보고서, 1976, pp. 636~639. 참조)

가 있다.

일곱째, 販賣方法 즉 現金販賣 및 外上販賣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販賣方法別 構成推移, 業種別 販賣方法推移, 規模別 販賣方法別推移 및 信用販賣額對外上未收金比率의 推移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

여덟째, 營業經費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營業經費率의 推移, 營業經費의 構成推移 및 規模別 營業經費率의 推移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本分析은 3次에 걸쳐 실시된 도소매업센서스의 자료사이에 連續性이 있어서 68~76년까지의 動態的變化의 파악이 가능한 내용만을 전제로 실시된 것이므로 종래 試圖되었던 68~71년간의 動態的變化의 分析과 반드시 內容上一致할 수는 없는 것이다.

本分析에서 사용된 資料는 3次에 걸쳐 실시된 도소매업센서스報告書에 의하였으므로 簡便을 위해 資料源表記는 생략하고 이 이외의 資料源에 의한 경우에만 이를 別揭키로 한다.

2. 店舗構造의 動向

(1) 總店舗의 推移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포함한 1976년도의 總店舗數는 532,958店인데 이는 5년전인 71년의 450,083店보다는 82,875店增이며, 71년의 그것은 3년전인 68년의 372,222店보다 77,861店增이다. 年平均店舗增加率을 보면 68~71년간(이하 前期로 略稱함)엔 7.0%포인트增이고, 71~76년간(이하 後期로 略稱함)엔 3.7%포인트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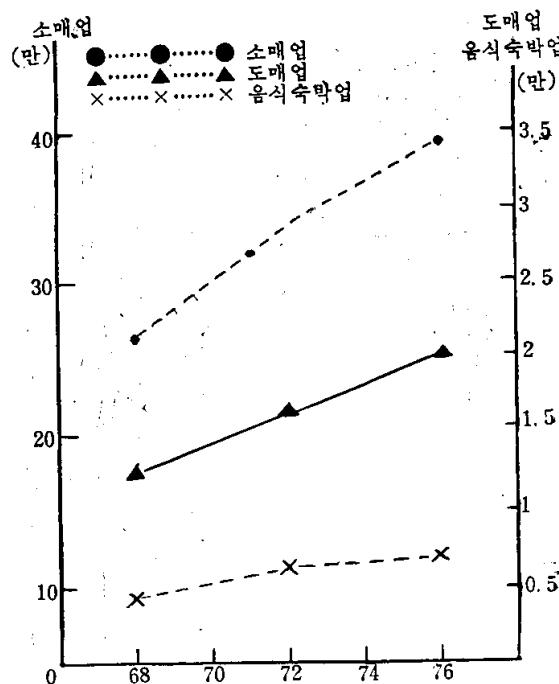
都小賣業과 飲食・宿泊業의 構成을 보면 76년에는 77.7% : 22.3%인데 대해 71년에는 74.9% : 25.1%, 68년에는 74.5% : 25.5%이어서 前期에 대비할때 後期에는 都小賣業의 比重이 약 3%포인트 높아지고 있다.

產業中分類로 보면 소매업의 총점포수는 76년에는 413,911店으로서 이는 71년의 336,900店보다 77,011店增이며, 71년의 그것은 다시 68년의 277,293店보다 59,607店增인데 年平均店舗增加率을 보면 前期에는 7.2%포인트增인데 반해 後期에는 4.6%포인트增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飲食・宿泊業의 總店舗數는 76년에는 119,047店인데 이는 71년의 113,183店보다 5,864店增이며, 71년의 그것은 다시 68년의 94,929店보다 18,254店增이다. 年平均店舗增加率을 보면 전기에는 6.4%포인트增이었으나 후기에는 1.0%포인트增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서 미루어 店舗數면에서는 狹義의 流通業인 都小賣業의 增加推移가 비록 후기에는 낮아지고는 있으나, 流通周邊產業인 음식숙박업의 그것보다는 2.7%포인트나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도소매업의 店舗數擴大가 음식숙박업의 그것보다 높음을 示唆하거나 아내면 近間의 음식숙박업의 大型化가 이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低下시킨 것이 아닌가 想定된다.

* 都小賣業을 전제로 할 때 一般都賣業의 店舗數는 76년에는 20,260店인데 이는 71년의 16,429店보다 3,831店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13,193店보다는 3,236店增이다. 年平均增加率은 前後期 각각 8.2%포인트增 및 4.7%포인트增이다. 이에 대해 小賣業의 店舗數는 76년엔 393,651店인데 이는 71년의 320,471店보다 73,180店增이며, 71년의 그것은 다시 68년의 264,100店보다는 56,371店增을 나타내는 것이다. 年平均店舗增加率을 보면 전후기 각각 7.1%포인트增과 4.6%포인트增이다.

都小賣業의 構成比重을 보면 76년엔 4.9% : 95.1%인데 이 비중은 71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68년에는 4.8% : 95.2%이어서 도매업의 비중이 0.1%포인트 높아진 반면 소매업의 그것은 0.1%포인트減이어서 양자의 比重의 변화는 거의 없다.



〈圖 2-1〉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店舗의 推移

〈表 2-1〉 總店舗數의 推移

(단위: 店, %)

區 分	店 舗 數			構 成 比			% 變 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68	71	76	전 기 (71/68)	후 기 (76/77)	전 기 (71/68)	후 기 (76/71)
計	372,222	450,083	532,958	100.0	100.0	100.0	—	—	7.0	3.7
都小賣業	277,293	336,900	413,911	74.5 (100.0)	74.9 (100.0)	77.7 (100.0)	0.4 (—)	2.8 (—)	7.2	4.6
一般都賣業	13,193	16,429	20,260	3.5 (4.8)	3.7 (4.9)	3.8 (4.9)	0.2 (0.1)	0.1 (0.0)	8.2	4.7
小賣業	264,100	320,471	393,651	71.0 (95.2)	71.2 (95.1)	73.9 (95.1)	0.2 (0.1)	2.7 (0.1)	7.1	4.6
飲食宿泊業	94,929	113,183	119,047	25.5	25.1	22.3	-0.4	-3.2	6.4	1.0

다음 1都賣店當 小賣店의 비율을 보면 68년에는 20.0店이었으나 71년에는 19.5店으로 감소되었고 76년에는 다시 19.4店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전기에는 0.5店減이었고 후기에는 0.1店減이어서 前期에 있어서의 減少幅이 후기보다 더 크다.

〈表 2-2〉 都賣店當 小賣店數

年 度	都賣店當 小賣店數	倍 率
68	20.0	1,000
71	19.5	0.975
76	19.4	0.970

(2) 企業形態別 店舗推移

都小賣業 및 飲食・宿泊業중 法人企業의 比重은 76년에는 0.84%로서 71년의 0.20%에 對比할때 0.64%포인트增이나, 71년의 그것은 68년의 0.25%보다는 0.05%포인트減이다. 年平均增減率을 보면 전기에는 2.1%포인트減이나 후기에는 81.6%포인트增을 나타내어 法人化的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기업은 76년에는 99.16%로서 71년에 對比할때 0.64%포인트減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에 대비하면 0.05%포인트增이다. 年平均增減率은 전기에는 7.0%포인트增인데 대해 후기에는 3.5%포인트增으로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다음 產業中分類로 보면 76년의 경우 都小賣業의 法人企業의 比重은 1.05%인데 대해 음식숙박업의 그것은 0.11%이어서 도소매업의 法人의 比重이 0.94%포인트나 높다. 도소매업의 法人企業의 年平均增減率을 보면 전기에는 5.9%포인트減이나 후기에는 114.8%포인트增이어서 급격한 法人企業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전기의 법인기업의 감소는 법인도매업의 감소가 현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기에 있어서의 法人都賣企業의 급격한 감소의 主因은 68년의 調査過程에서의 錯誤때문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構成比重上

68년에 4.18%나 되던 法人都賣企業이 71년에 1.72%로 急減하는 현상은 유통구조의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68년의 센서스時에 諸種事情으로 法人企業으로 회답한 도매기업이 71년에는 개인기업으로 회답하였기 때문이라 類推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기에는 도매업이 24.6%포인트나 증대되었는데도 不拘하고 法人企業의 증가는 없이 오히려 急減한다는 것은 경상적인 流通構造의 변화동향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전기에는 현저히 증가되었으나 후기에는 年平均 8.7%포인트나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觀光客誘致를 위한 高層호텔등의 增築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小賣業의 경우 76년의 法人小賣業의 비중을 보면 0.45%로서 이는 71년에 對比하면 0.34%포인트增이나, 71년의 그것을 68년에 대비하면 0.17%포인트減이다. 年平均增減率을 보면 전기는 1.01%포인트增이나, 후기에는 78.7%포인트增이어서 후기에 있어서 小賣業의 法人化의 傾向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76년의 개인기업의 비중을 보면 도매업은 87.38%이고 소매업은 99.55%이며, 음식·숙박업은 99.89%를 占하고 있어서 店舗構造는 零細的·小規模店舗의 비중이 아직도 壓倒的으로 높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전기에 비해 후기에 있어서 大型店舗의 年平均增加

〈表 2-3〉 企業形態別 店舗數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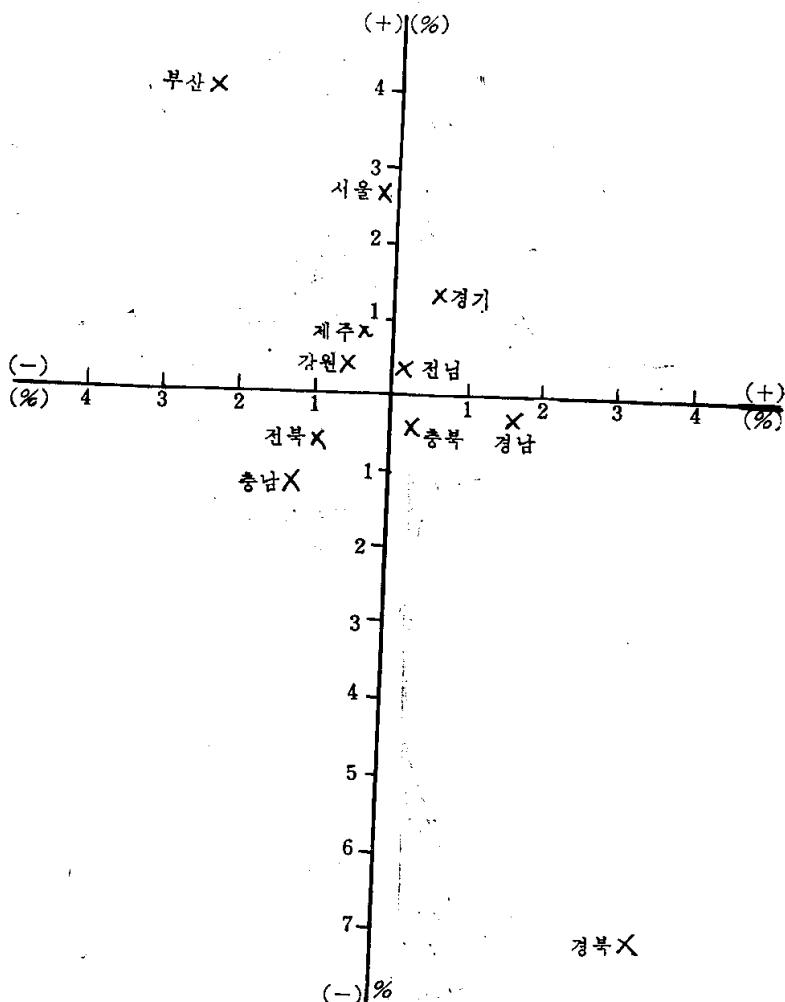
(단위 : %)

業 態 區 分	法 人 企 業						
	構 成 變 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 變 化	71/68	76/71	
計	0.25	0.20	0.84	-0.05	0.64	-2.1	81.6
都 小 賣 業 計	0.32	0.19	1.05	-0.13	0.86	-5.9	114.8
一 般 都 賣 業	4.18	1.72	12.62	-2.46	10.90	-55.2	160.6
小 賣 業	0.13	0.11	0.45	-0.02	0.34	1.01	78.7
飲 食 宿 泊 業	0.04	0.21	0.11	0.17	-0.10	185.2	-8.7
個 人 企 業							
	構 成 變 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 變 化	71/68	76/71	
	71	76					
計	99.75	99.80	99.16	0.05	-0.64	7.0	3.5
都 小 賣 業	99.68	99.81	98.95	0.13	-0.86	7.2	4.4
小 賣 業	95.82	98.28	87.38	2.46	-10.90	9.2	1.9
飲 食 宿 泊 業	99.87	99.89	99.55	0.02	-0.34	7.1	4.9
	99.96	99.79	99.89	-0.17	0.10	6.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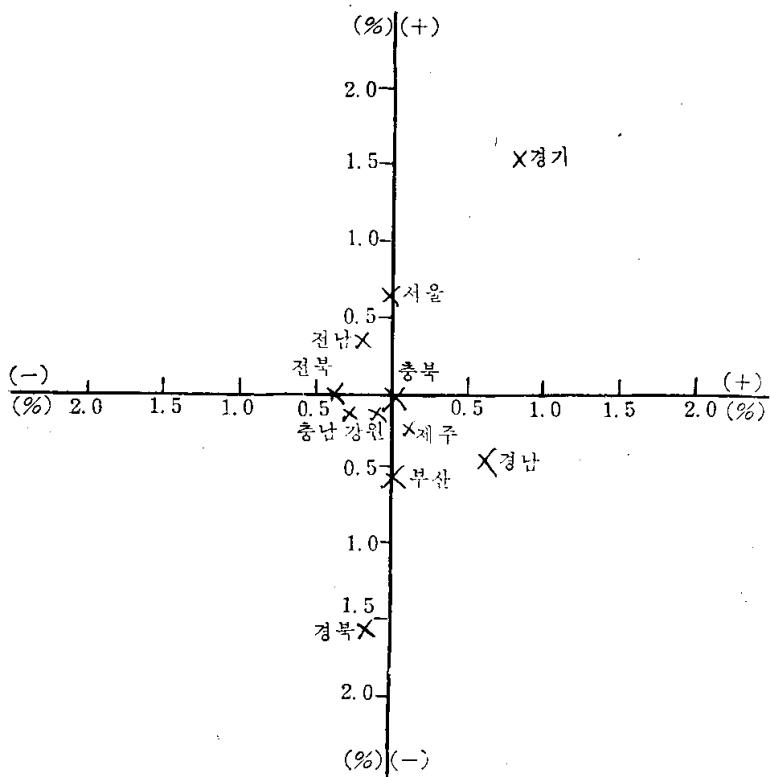
率이 현저하게 높음은 流通近代化의 一方向인 流通機關의 大規模化 내지 大型化的 방향으로 店舖構造變化의 動向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地域別 店舖數推移

76년의 一般都賣業의 地域別比重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아서 33.7%이고 다음은 부산의 13.8%이고, 그 다음은 경북의 11.3%, 경기 9.0%, 전남 7.0%의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의 1.8%이다. 構成比의 변동을 보면 전후기 모두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경기 및 전남이며, 전기엔 감소되었으나 후기에 증가한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이며, 전기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지역은 경북, 경남, 충북이고, 전후기 모두 감소한 지역은 전북 및



〈圖 2-2〉 地域別 店舖 構成比變化(일반도매업)



〈圖 2-3〉 地域別 店舗 構成比變化(소매업)

충남이다. 이에서 미루어 都賣圈의 再編成動向이 있음을 類推할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에 비중이 낮아졌었던 大都市인 서울과 釜山圈이 후기에는 그 비중이 반대로 높아짐으로써 都賣圈의 中心地로서의 기능을 더욱 集中化하는 경향이 엿보이며, 京畿와 全南도 꾸준히 比重增加를 통해 확고한 都賣圈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에서 他都賣圈에 이르는 通過地域에 속하는 忠南과 全北은 그 비중이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고, 전기에 비중이 높아졌다가 후기에 낮아진 지역인 충북·경남 및 경북은 近間에 이르러 都賣中心都市로서의 役割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都賣의 地方分散化傾向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소매업의 경우 76년의 比重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25.4%이고 다음은 13.4%의 경북, 12.8%의 경기, 8.8%의 전남, 8.3%의 경남 8.2%의 부산의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1.1%의 제주이다. 比重의 變化推移를 보면 전후기 모두 높아진 지역은 경기이며, 양기 모두 변화가 없는 지역은 충북이다. 전기엔 변화가 없다가 후기에 증대된 지역은 서울

이미 낮아진 지역은 부산이다.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변동이 없는 지역은 전북이며, 전기에 증대하였다가 후기에 감소한 지역은 경남, 전기에 감소하였다가 후기에 증대한 지역은 전남이며, 양기 모두 낮아진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및 경북이다. 이에서 미루어 都賣構造上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엿보이나 小賣構造上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를 엿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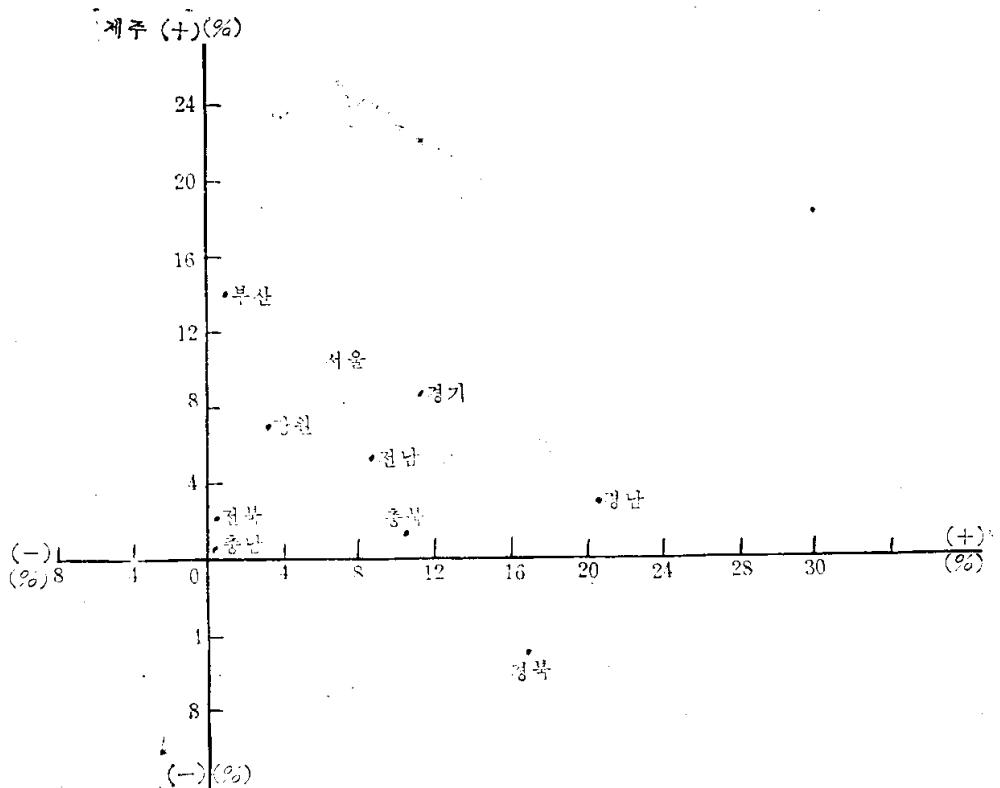
다음 一般都賣業의 年平均店舗增加率을 보면 전기에 감소하였다가 후기에 증대된 지역으로는 제주가 있으며, 전기에 증대하였다가 후에기 감소된 지역은 경북이다. 나머지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慶北을 중심으로 하는 都賣圈의 역할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매업은 모두 증가경향을 띠고 있으며, 증가경향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경기, 전북, 전남, 부산 및 경남등이다.

〈表 2-4〉 地域別 店舗推移

(단위 : 店, %)

地域別	一 般 都 賣 業						小 賣 業							
	構成變化			%增減		年平均增減率		構成變化			%增減		年平均增減率	
	1968	1971	1976	71	76	71/68	76/71	1968	1971	1976	71	76	71/68	76/71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193	16,429	20,260	—	—	8.2	4.7	264,	320,	393,	—	—	7.1	4.6
서울	31.2	31.0	33.7	-0.2	2.7	7.8	6.9	24.7	24.7	25.4	0	0.7	7.2	5.2
부산	11.9	9.9	13.8	-2.0	3.9	1.0	14.5	8.7	8.7	8.2	0	-0.5	7.0	3.4
大邱	7.2	7.7	9.0	0.5	1.3	11.3	8.8	10.5	11.2	12.8	0.7	1.6	9.7	8.1
京畿道	5.4	4.8	5.2	-0.6	0.4	3.6	7.0	5.8	5.7	5.6	-0.1	-0.1	6.6	4.1
江原道	2.9	3.1	2.7	0.2	-0.4	10.8	1.6	3.7	3.7	3.7	0	0	7.7	4.5
忠淸北道	7.6	6.3	5.2	-1.3	-1.1	0.6	0.6	7.5	7.2	7.1	-0.3	-0.1	5.0	4.2
忠淸南道	5.3	4.3	3.7	-1.0	-0.6	0.5	1.1	6.0	5.6	5.6	-0.4	0	4.2	4.5
全羅北道	6.6	6.7	7.0	0.1	0.3	8.9	5.6	8.6	8.4	8.8	-0.2	0.4	6.1	5.8
全羅南道	15.2	18.5	11.3	3.3	-7.2	17.3	-4.9	15.1	14.9	13.4	-0.2	-1.5	6.4	2.1
慶尙北道	5.3	6.9	6.6	1.6	-0.3	20.5	3.5	8.1	8.7	8.3	0.6	-0.4	9.7	3.5
濟州道	1.3	0.9	1.8	-0.4	0.9	-5.1	27.9	1.2	1.3	1.1	0.1	-0.2	10.1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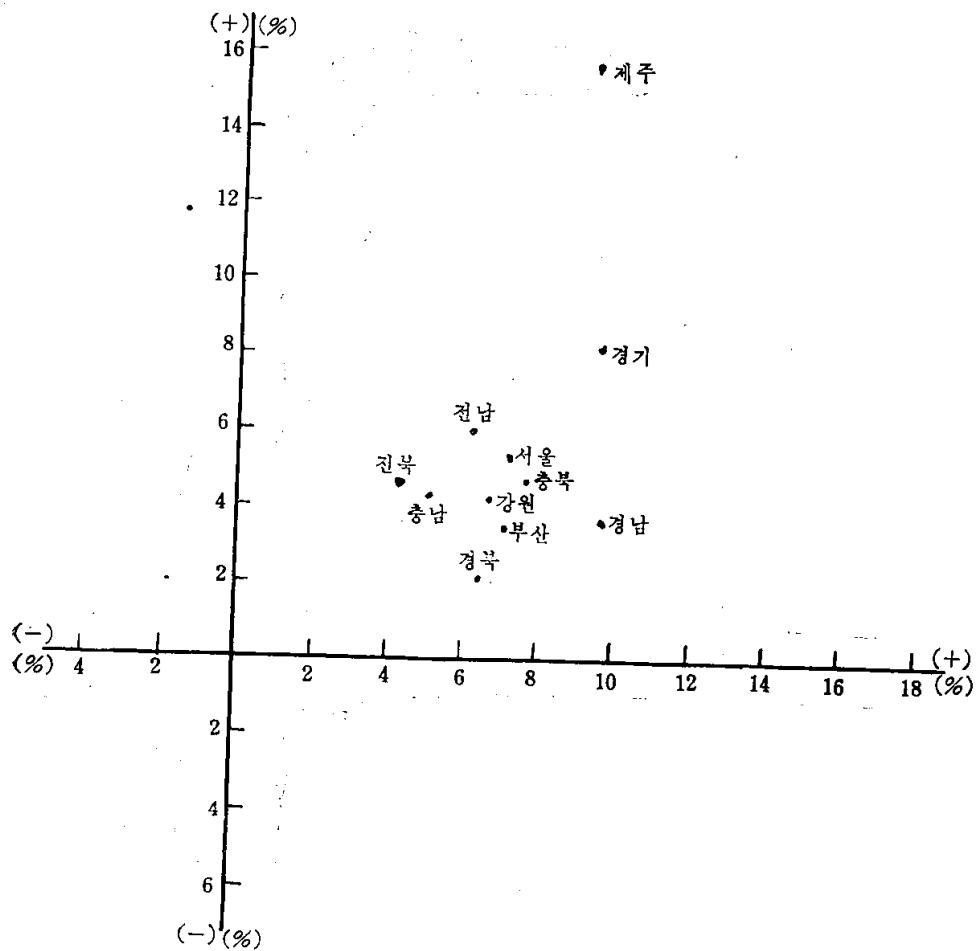
人口 1,000人當店舗數를 보면 76년의 경우 全國平均은 11.3店인데 이를 上廻하는 지역은 서울의 14.5店, 부산의 13.2店, 경기의 12.4店 및 강원도의 11.9店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이를 下廻하고 있다. 가장 적은 지역은 8.7店의 全南이다. 全國平均의 推移를 보면 전기에는 1.2店, 후기에는 1.1店이 증대되고 있는데 서울은 전기에는 2.8店減, 후기에는 0.2店增이고 부산은 전후기 각각 1.3店減 및 1.5店減, 제주는 전기에는 1.8店增이나 후기에는 0.4店減을 나타내고 있고, 餘他의 지역은 모두 增大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增加傾向은



〈圖 2-4〉 地域別 店舗增減推移(도매업)

곧 人口增加를 上廻하는 店舗開設이 이루어졌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指數가 전후기에 낮아진 서울, 부산 및 제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店舗開設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大型化되는 傾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指標는 人口數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店舗數가 증가되어야만 증대되는데 人口數는 항상 自然增加하기 마련이므로 이의 감소는 店舗擴大의 鈍化나 大型化를 示唆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의 逆數인 1店當人口數를 보면 全國平均은 88.2人인데 이보다 적은 지역은 역시 서울, 부산, 경기 및 강원의 4地域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때 2大都市 및 이의 周邊地域에 있어서의 小賣店의 大型化傾向을 엿볼 수 있다. 이의 推移를 보면 全國平均으로 전기에는 12.6人減이고 후기에는 9.7人減인데 서울은 전기에는 11.5人減이고 후기에는 1.0人減이다. 부산은 전후기 각각 5.4人增과 7.8人增을 나타내고 있고, 제주는 전기엔 17.9人減이었으나 후기엔 3.1人增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大都市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店舗增加傾



〈圖 2-5〉 地域別 店舗増減推移(小賣業)

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다음 都賣業의 경우 76년의 區市郡部別店舗占有率을 보면 區部가 62.6%이고 市部와 郡部는 모두 18.7%이다. 年平均增加率 推移를 보면 全國平均으로 전기는 8.2%포인트增이고, 후기는 4.7%포인트增이다. 이에서 보면 區部에의 都賣集中度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市部는 전기에는 1.6%포인트가 증가되었으나 후기에는 0.3%포인트 낮아지고 있고, 郡部도 계속하여 그 比重이 낮아지고 있다. 都賣店舗增加는 전후기 모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部別增加寄與率을 보면 區部가 압도적이어서 前後期 모두 약 67%臺의 寄與를 하고 있다.

〈表 2-5〉 市道別 人口 1,000人當 小賣店舗數 및 1店當人口數의 推移

市道別	人口 1,000人當小賣店舗數(店)					1店當人口數(人)				
	68	71	76	增 減		68	71	76	增 減	
				71	76				71	76
平均	9.0	10.2	11.3	1.2	1.1	110.5	97.9	88.2	-12.6	-9.7
서울특별시	17.1	14.3	14.5	-2.8	0.2	58.4	69.9	68.9	11.5	-1.0
부산직할시	16.0	14.7	13.2	-1.3	-1.5	62.4	67.8	75.6	5.4	7.8
경기도	8.9	10.7	12.4	1.8	1.7	112.0	93.7	80.4	-18.3	-13.3
강원도	8.4	9.9	11.9	1.5	2.0	119.4	101.5	84.1	-17.9	-17.4
충청북도	6.3	8.1	9.6	1.8	1.5	159.8	124.0	104.1	-35.8	-19.9
충청남도	6.9	8.0	9.4	1.1	1.4	145.8	124.7	106.0	-21.1	-18.7
전라북도	6.3	7.3	8.9	1.0	1.6	158.9	136.1	112.2	-22.8	-23.9
전라남도	5.6	6.7	8.7	1.1	2.0	177.4	148.5	114.5	-28.9	-34.0
경상북도	8.9	10.5	10.8	1.6	0.3	111.9	95.6	92.2	-16.3	-3.4
경상남도	6.8	8.9	9.9	2.1	1.0	147.8	112.5	100.6	-35.3	-11.9
제주도	9.3	11.1	10.7	1.8	-0.4	107.9	90.0	93.1	-17.9	3.1

註 : 人口數 71년 1970.10.1, 76년 1975.10.1 현재 선서스人口임.

店舗數 68년 1968.7.1, 71년 1971.7.1, 76년 1976.7.1. 현재, 도소매업선서스.

〈表 2-6〉 都市郡部別 店舗分布推移

(단위 : %)

區分	一般都賣業					小賣業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1968	1971	1976	71/68	76/71	1968	1971	1976	68/71	76/71
全國計	100.0	100.0	100.0	8.2	4.7	100.0	100.0	100.0	7.1	4.6
區部	60.4	61.5	62.6	9.0	5.1	46.3	46.1	46.4	7.0	4.7
市部	17.4	19.0	18.7	11.8	4.4	14.7	14.6	16.4	6.9	7.5
都市小計	77.8	80.5	81.3	9.6	4.9	61.0	60.7	62.8	7.0	6.1
郡部	22.2	19.5	18.7	3.2	3.6	39.0	39.2	37.2	7.3	3.3

註 : 大田市를 區部에 編入計算함.

市部는 전기에는 25%臺의 寄與를 하고 있으나 후기에는 17.9%밖에 되지 않으며 후기에는 郡部의 寄與率이 약 배가되고 있다. 이는 都賣의 地方擴散倾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小賣業의 경우 76년의 區市郡部別占有率을 보면 區部는 46.4%로서 比重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市部는 16.4%로서 확대추이를 나타내며, 郡部는 37.2%로서 약 2%포인트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小賣店舗增加寄與率을 보면 區部의 경우에는 전후기 각각 45.6%, 포인트 및 47.6%포인트의 寄與를 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市部의 경우에는 후기의 증가율이 높아져서 中小都市에서의 小賣業의 擴大推移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郡部의 그것은

〈表 2-7〉 區市郡部別店舗增減寄與率

區 分	一 般 都 賣 業				小 賣 業			
	前 期	後 期	前 期	後 期	前 期	後 期	前 期	後 期
區 部	543.60	66.3	313.65	67.0	324.10	45.6	216.67	47.6
市 部	205.32	25.0	83.60	17.9	101.43	14.3	109.50	24.0
郡 部	71.04	8.7	70.20	15.0	284.70	40.1	129.36	28.4
計		100.0		100.0		100.0		100.0

40.1%에서 28.4%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郡部의 후기에 小賣店舗의 增加推移의 停滯는 郡部의 小賣需要의 區市部로의 吸引을 반영하는 것으로 類推된다.

(4) 主要都市別 店舗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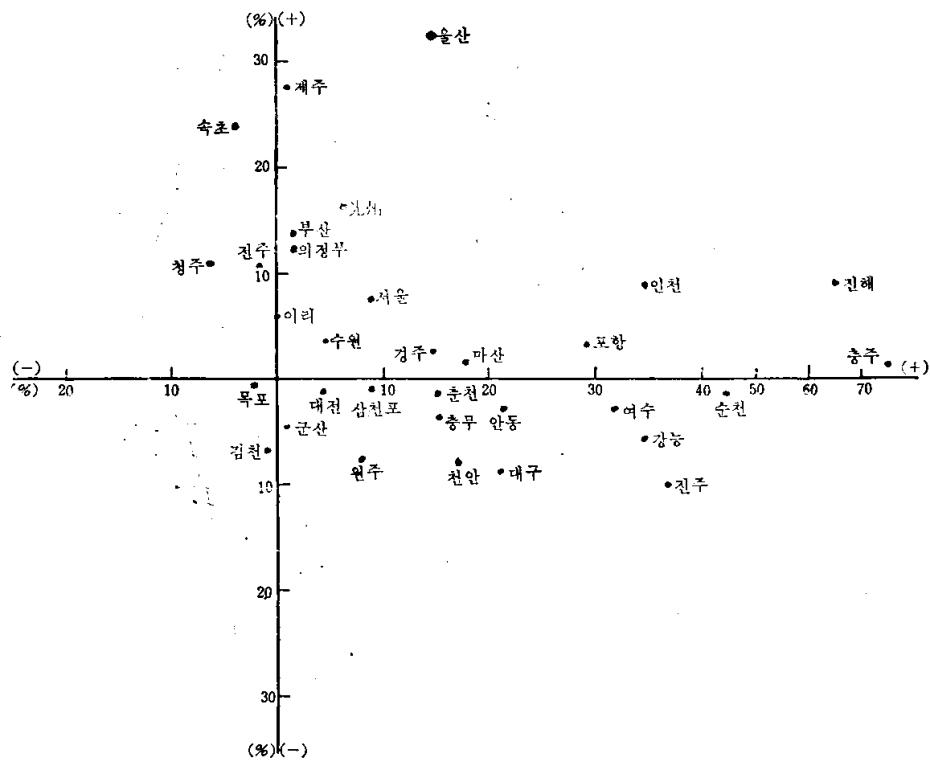
主要都市別店舗推移를 보면 都賣業의 경우 76년의 比重이 가장 높은 都市는 서울의 33.7%이며, 다음은 부산의 13.8%로서 兩大都市에의 集中度는 47.5%이다. 68년의 그것은 43.2%이었고, 71년은 40.9%로서 전기보다 후기에 集中度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부산, 大邱, 仁川, 光州 및 大田등 6大都市에의 集中度를 보면 62.6%이다. 68년에는 60.4%였고 71년에는 61.5%어서 전후기 각각 1.1%포인트의 比重增加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6大都市의 都賣店舗年平均增加率을 보면 전기에는 9.0%포인트增이고, 후기에는 5.1%포인트增으로 후기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6大都市중 구성비가 전후기에 걸쳐 계속하여 증가된 도시는 부산, 인천이며 전기에 감소하고 후기에 증가한 도시는 서울, 光州이며 전기에 증가하였다가 후기에 감소한 도시는 대구이며 전후 모두 감소한 도시는 大田이다. 전기에는 6大都市 모두 年平均增加率이 增勢를 보였으나 후기에는 大邱와 大田만이 減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후기에 있어서의 兩都市의 都賣中心地로으로서의 役割이 낮아지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76년의 都賣店舗占有率이 1%이상인 都市를 보면 蔚山, 馬山, 全州, 濟州, 清州 및 浦項 등인데, 울산은 종래에는 1%미만이었다. 馬山은 68년에는 1.4%, 71년에는 1.7%를 占하였고 全州도 각각 1.3% 및 1.0%를 占하였다. 清州는 68년에는 1.3%이었으나 71년에는 0.8%로 그 비중이 낮았었다. 濟州는 68 및 71년에는 1%臺를 占하지 못하였으며 포항은 68년에는 0.7%로서 1%미만이었다가 71년에는 1.1%로 浮上하고 있다. 水原은 68년에 1.1%를 71년에는 1.0%를 占하였다가 76년에는 1%臺이 하로 脱落하고 있다. 68년에는 1.3%이었던 木浦는 71년에는 0.5%, 76년에는 0.8%로 낮아지고 있으며, 71년에 1.0%를 占하였었던 群山 및 麗水는 76년에는 모두 0.7%를 占하여 1%臺이 하로 脱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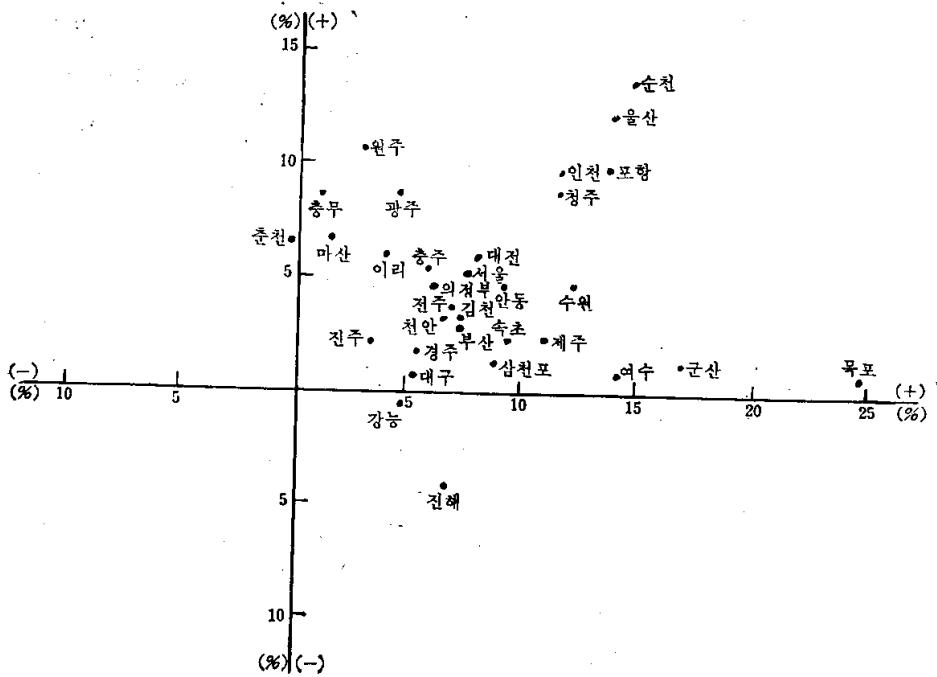
構成比가 전후기 모두 증가한 도시로는 鎮海와 蔚山이 있고 변동이 없는 도시는 三千浦이며, 전기에는 증가하였다가 후기에 변동이 없는 도시는 충주이며 전후기 모두 감소된 도시는 水原과 金泉이다. 餘他의 도시는 모두 전후기 중 1期에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年平均增加率이 양기 모두 增勢를 나타내는 도시는 水原, 議政府, 忠州, 浦項, 延州, 鎮海, 三千浦, 蔚山 및 濟州이고 전기에는 변동이 없다가 후기에 增勢를 나타낸 도시는 裡里이고 양기 모두 減勢를 나타낸 도시는 木浦와 金泉이다.

小賣業의 경우 76년의 小賣店舗占有率을 보면 서울이 25.4%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은 釜山의 8.2%, 大邱의 5.3%, 仁川 3.4%, 光州 2.3%, 大田 1.8%로서 이들 6大都市의 小賣店舗占有率은 46.4%이다. 68년에는 46.3%였고 71년에는 46.1%어서 構成比上의 큰 변화는 없어서 전기에는 0.2%포인트減이고 후기에는 0.3%포인트增이다. 이들 6大都市의 年平均增加率은 모두 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이 이외의 도시중 占有率이 1%이상인 도시를 보면 馬山이 1.1%이고 全州와 蔚山이 1.0%를 占하고 있다. 마산은 68년에는 1.2%이었다가 71년에는 1.0%로 낮아졌으나 76



〈圖 2-6〉 主要都市別 店舗増減推移(도매업)



〈圖 2-7〉 主要都市別 店舗増減推移(小賣業)

년에 다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는 68년 및 71년에 아울러 각 1.1%를 占하였으나 76년에는 그 비중이 약간 낮아지고 있다. 울산은 68년 및 71년에는 각각 0.6%와 0.7%이어서 그 比重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후기 모두 比重이 증대된 도시는 清州 및 蔚山

〈表 2-8〉 都市別店舗數의 推移

(단위: 店, %)

都市別	一般 都 賣 業						小 賣 業							
	店舗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加率		店舗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加率			
	68	71	76	71	76	68/71	76/71	68	71	76	71	76	68/71	76/71
全國	100.0 13,193	100.0 16,429	100.0 20,260					100.0 264,	100.0 320,	100.0 393,				
서울	31.3	31.0	33.7	-0.3	2.7	7.8	6.9	24.4	24.7	25.4	0.3	0.7	7.2	5.2
釜山	11.9	9.9	13.8	-2.0	3.9	1.0	14.5	8.7	8.7	8.2	0	-0.5	7.0	3.4
大邱	9.8	12.6	6.5	2.8	-6.1	20.2	-7.4	6.6	6.2	5.3	-0.4	-0.9	5.0	0.8
仁川	1.9	3.0	3.5	1.1	0.5	32.7	9.1	2.5	2.8	3.4	0.3	0.6	11.9	9.5
光州	1.8	1.7	2.5	-0.1	0.8	6.3	16.4	2.1	1.9	2.3	-0.2	0.4	4.4	8.7
大田	3.7	3.3	2.6	-0.4	-0.7	4.1	-1.1	1.7	1.8	1.8	0.1	0	7.7	5.9
小計(區)	60.4	61.5	62.6	1.1	1.1	9.0	5.1	46.3	46.1	46.4	-0.2	0.3	7.0	4.7

水原	1.1	1.0	0.9	-0.1	-0.1	4.0	2.9	0.8	0.9	0.9	0.1	0	12.0	4.7
議政府	0.3	0.2	0.3	-0.1	0.1	1.0	17.8	0.5	0.5	0.5	0	0	6.0	4.9
城南	—	—	0.5	—	—	—	—	—	—	0.8	—	—	—	—
安養	—	—	0.4	—	—	—	—	—	—	0.6	—	—	—	—
富川	—	—	0.2	—	—	—	—	—	—	0.4	—	—	—	—
春川	0.8	0.9	0.7	0.1	-0.2	13.8	-1.1	0.7	0.6	0.7	-0.1	0.1	-0.4	6.5
原州	0.8	0.8	0.6	0	-0.2	8.0	-8.1	0.5	0.5	0.6	0	0.1	2.6	10.6
江陵	0.4	0.6	0.4	0.2	-0.2	34.6	-4.2	0.4	0.4	0.3	0	-0.1	4.8	-0.5
束草	0.5	0.3	0.6	-0.2	0.3	-4.1	23.4	0.3	0.4	0.3	0.1	-0.1	9.4	2.3
清州	1.3	0.8	1.0	-0.5	0.2	-6.3	10.6	0.6	0.7	0.8	0.1	0.1	11.4	8.7
忠州	0.2	0.5	0.5	0.3	0	78.2	1.1	0.5	0.4	0.4	-0.1	0	5.6	5.2
天安	0.8	0.9	0.5	0.1	-0.4	16.7	-7.1	0.4	0.4	0.4	0	0	6.7	3.3
全州	1.3	1.0	1.2	-0.3	0.2	-2.5	10.2	1.1	1.1	1.0	0	-0.1	6.6	3.7
群山	0.9	1.0	0.7	0.1	-0.3	1.3	-3.2	0.7	0.7	0.6	0	-0.1	17.0	1.4
裡里	0.6	0.5	0.5	-0.1	0	0	6.1	0.6	0.5	0.5	-0.1	0	3.6	6.0
木浦	1.3	0.5	0.8	-0.8	0.3	-1.9	-1.2	0.9	0.9	0.9	0	0	8.3	0.7
麗水	0.7	1.0	0.7	0.3	-0.3	31.8	-2.8	0.6	0.7	0.6	0.1	-0.1	14.2	0.9
順天	0.4	0.7	0.5	0.3	-0.2	45.1	-1.8	0.3	0.3	0.4	0	0.1	14.6	13.9
浦項	0.7	1.1	1.0	0.4	-0.1	29.4	3.4	0.4	0.4	0.5	0	0.1	12.0	9.9
慶州	0.3	0.4	0.3	0.1	-0.1	13.3	2.2	0.6	0.5	0.5	-0.1	0	5.1	1.8
金泉	0.7	0.5	0.3	-0.2	-0.2	-0.3	-6.8	0.4	0.4	0.4	0	0	6.8	3.4
安東	0.4	0.6	0.4	0.2	-0.2	21.4	-2.0	0.4	0.4	0.4	0	0	8.9	4.9
馬山	1.4	1.7	1.5	0.3	-0.2	18.0	1.2	1.2	1.0	1.1	-0.2	0.1	1.4	6.8
晉州	0.6	1.0	0.6	0.4	-0.4	37.0	-6.5	0.8	0.7	0.7	-0.1	0	3.2	2.2
忠武	0.4	0.4	0.3	0	-0.1	14.0	-3.7	0.3	0.3	0.3	0	0	0.9	8.6
鎮海	0.2	0.4	0.5	0.2	0.1	63.9	9.1	0.5	0.5	0.3	0	-0.2	6.6	-4.1
三千浦	0.3	0.3	0.3	0	0	9.4	0.8	0.2	0.2	0.2	0	0	8.6	1.4
蔚山	0.6	0.7	1.6	0.1	0.9	17.7	33.6	0.6	0.7	1.0	0.1	0.3	13.8	12.4
濟州	0.8	0.6	1.2	-0.2	0.6	1.5	27.0	0.5	0.5	0.5	0	0	10.2	2.4
小計	17.4	19.0	18.7	1.6	-0.3	11.8	4.4	14.7	14.6	16.4	-0.1	1.8	6.9	7.5
(區市)合計	77.8	80.5	81.3	2.7	0.8	9.6	4.9	61.0	60.8	62.8	-0.2	2.0	7.0	5.4

뿐이고 변동이 없는 도시는 議政府, 天安, 木浦, 金泉, 安東, 忠武, 三千浦 및 濟州로서
이는 停滯相을 나타내고 있다. 후기에 비중이 감소된 도시는 江陵, 束草, 全州, 群山, 麗
水 및 鎮海등이며,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전기에 감소경향을 나타낸 도시는 春川뿐이며
후기에 감소경향을 나타낸 도시는 江陵 및 鎮海의 두 도시이다.

(5) 常時從業員規模別 店舗推移

常時從業員規模에 따른 店舗比重 및 그 增加推移를 보면 76년의 도매업의 경우 1~2 규
모의 比重은 48.2%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은 3~4人규모로서 29.4%이고 5~9人은 14.3%,
10人이상은 8.1%이다. 增加推移를 보면 후기에 있어서의 10人이상규모의 증가가 가장 현
저하며 3~4人규모는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構成比면에서 보면 3~4人규모만이 후기

에 8.0%포인트減을 나타내며 반대로 전기에는 5~9人규모와 10人이상규모가 각각 0.6%포인트 및 0.9%포인트의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5~9人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10人이상규모는 4.2%포인트增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都賣業의 分極化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小賣業의 경우를 보면 1~2人규모의 比重이 압도적이어서 89.3%를 占하고 있는데 이의 比重은 전기에는 0.4%포인트가 낮아졌으나 후기에는 오히려 2.0%포인트가 反增하고 있어서 零細店舗의 增加傾向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3~4人규모는 8.9%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전후기 각각 0.1%減 및 2.0%減을 나타내어 減少傾向을 나타내며 5~9人규모는 1.4%로서 전기에는 0.4%포인트增이 있으나 후기에는 0.2%포인트減을 나타내고 있어 中規規模小賣商의 후기에 있어서의 減少傾向이 두드러진다. 10人이상의 규모는 0.4%밖에 되지 않으나 전후기 모두 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각각 0.1%포인트增 및 0.2%포인트增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때 小賣業의 경우에도 컨비니언스·스토어(convenience store)의 성격을 가지는 零細小規模의 점포와 반면 大量流通機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大型店의 증가는 현저하나 中規規模店舗의 감소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역시 分極化現象을 엿볼 수 있다. 年平均增加率에서 볼때 후기에 감소하고 있는 규모는 3~4人규모이며 나머지 규모는 모두 증대하고 있다. 특히 10人이상 규모의 증가경향이 아주 현저하다.

構成比면에서 볼때 4人이하의 영세규모의 比重은 98.2%임에 미루어 小賣構造의 零細性을 알 수 있다.

(6) 販賣額規模別 店舗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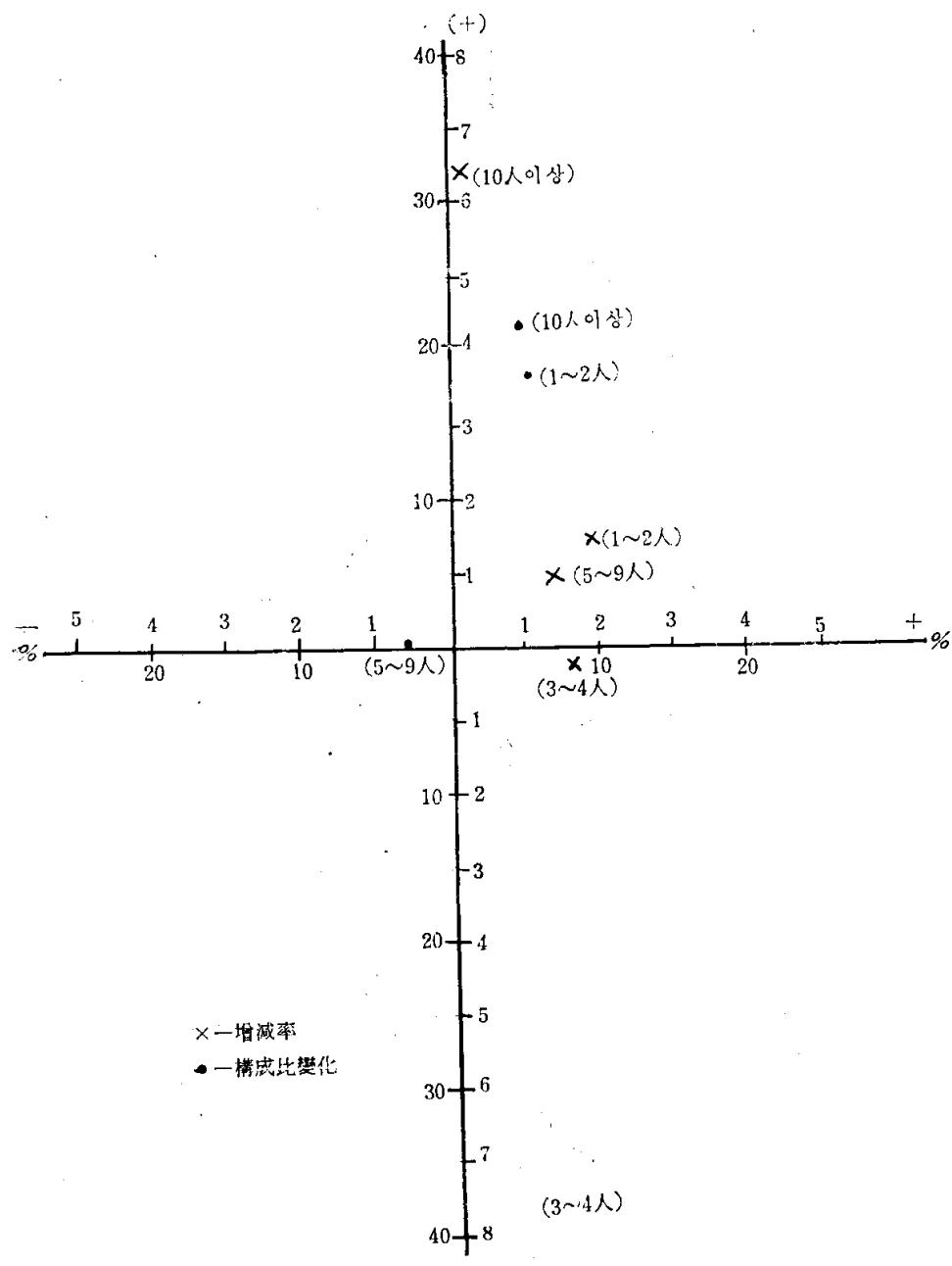
도매업의 경우 76년의 販賣額規模別店舗比重을 보면 1천~5천만원 미만규모의 기업이 가

〈表 2-9〉 常時從業員規模別 店舗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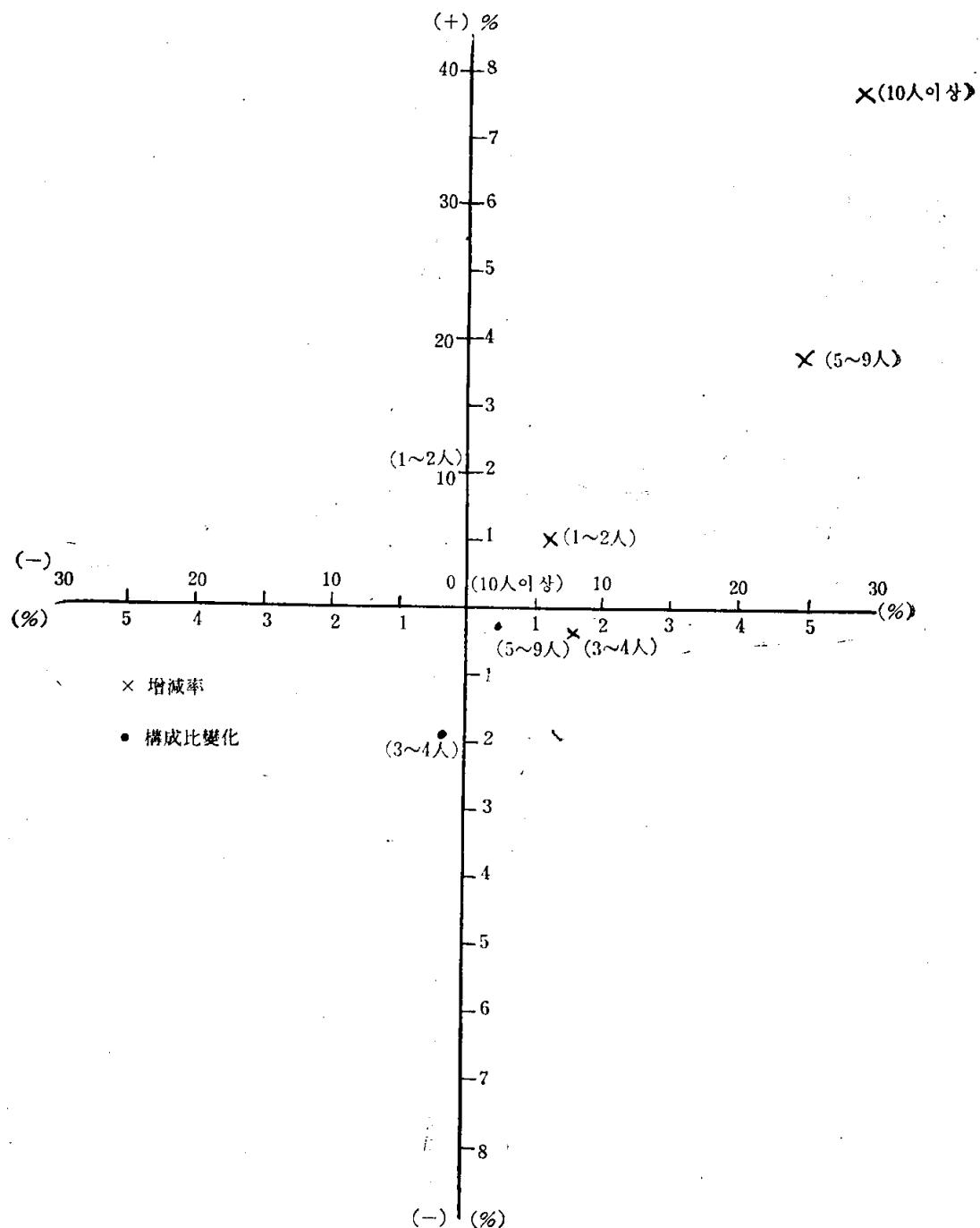
(단위 : %)

業種 規模	一 般 都 賣 業						小 賣 業							
	構 成 變 化			年平均增減率		構 成 變 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增減	71	76	68	71	76	%增減	71	76		
1~2人	43.4	44.4	48.2	1.0	3.6	9.1	6.8	87.7	87.3	89.3	-0.4	2.0	6.9	5.1
3~4	36.9	37.4	29.4	0.5	-8.0	8.7	-0.6	11.0	10.9	8.9	-0.1	-2.0	6.7	-0.7
5~9	14.9	14.3	14.3	-0.6	0	6.5	4.7	1.2	1.6	1.4	0.4	-0.2	23.6	18.9
10人以 上	4.8	3.9	8.1	-0.9	4.2	0.3	31.4	0.1	0.2	0.4	0.1	0.2	35.7	39.7
計	100.0	100.0	100.0	—	—	8.2	4.7	100.0	100.0	100.0	—	—	7.1	4.6

註 : 都賣業中무역업, 대리점 및 중계업除外



〈圖 2-8〉 常時從業員規模別 店舗増減推移(都賣業)



〈圖 2-9〉 常時従業員規模別 店舗推移(小売業)

〈表 2-10〉 年間販賣額規模別 店舗數의 推移

(단위 : %)

販賣額規模別	一般 都 賣 業							
	店舗數			% 變化		年增減率		
	1 9 6 8	1 9 7 1	1 9 7 6	71	76	71/68	76/71	
計	13,193(100.0)	16,429(100.0)	20,260(100.0)	—	—	8.2	4.7	
10만원미만	173 (1.3)	41 (0.2)	14 (0.1)	-1.1	-0.1	-25.4	-13.2	
10~50만원미만	1,241 (9.4)	435 (2.6)	156 (0.8)	-6.8	-1.8	-21.7	-12.8	
50~100만원미만	1,373 (10.4)	930 (5.7)	317 (1.6)	-4.7	-4.1	-10.8	-13.2	
100~200만원미만	2,200 (16.6)	2,133 (13.0)	1,083 (5.3)	-3.6	-7.7	-1.0	-9.8	
200~500만원미만	3,347 (25.4)	3,829 (23.3)	2,271 (11.2)	-2.1	-12.1	4.8	-8.1	
500~1,000만원미만	2,153 (16.3)	3,371 (20.5)	2,385 (11.8)	4.2	-8.7	18.9	-5.8	
1,000~5,000만원미만	2,164 (16.4)	4,390 (26.7)	7,720 (38.1)	10.3	11.4	34.3	15.2	
5,000~1억원미만	301 (2.3)	663 (4.0)	2,911 (14.4)	1.7	10.4	40.1	67.8	
1억~10억원미만	210 (1.6)	601 (3.7)	3,130 (15.4)	2.1	11.7	62.1	84.2	
10억원이상	31 (0.2)	36 (0.2)	273 (1.3)	0	1.1	5.4	131.7	
小賣業								
販賣額規模別	店舗數			% 變化		年增減率		
	1 9 6 8	1 9 7 1	1 9 7 6	71	76	68/71	76/71	
	264,100(100.0)	320,471(100.0)	393,651(100.0)	—	—	7.1	4.6	
計	40,429 (15.3)	4,241 (1.3)	1,429 (0.4)	-14.0	-0.9	-29.8	-13.3	
10만원미만	117,192 (44.4)	90,158 (28.1)	19,756 (5.0)	-16.3	-23.1	-7.7	-15.6	
10~50만원미만	50,107 (19.0)	83,345 (26.0)	37,731 (9.6)	7.0	-16.4	22.1	-10.9	
50~100만원미만	31,528 (11.9)	82,404 (25.7)	75,171 (19.1)	13.8	-6.6	53.8	-1.8	
100~200만원미만	18,050 (6.8)	40,802 (12.7)	122,208 (31.0)	5.9	18.3	42.0	39.9	
200~500만원미만	4,921 (1.9)	13,265 (4.1)	72,212 (18.3)	2.2	14.2	56.5	88.9	
500~1,000만원미만	1,659 (0.6)	5,967 (1.9)	58,205 (14.8)	1.3	12.9	86.6	175.1	
1,000~5,000만원미만	66 (0.02)	202 (0.06)	4,429 (1.1)	0.04	1.04	68.7	418.5	
5,000~1억원미만	28 (0.01)	71 (0.02)	2,431 (0.6)	0.01	0.58	51.2	664.8	
1억원~10억원미만	120 (0.05)	16 —	79 (0.02)	-0.05	0.02	-28.9	78.8	

註 : ()는 構成比임.

〈表 2-11〉 年間販賣額規模別 店舗比重(도매업) (단위 : %)

規 模 別	68	71	76
100만원미만	21.1	8.5	2.5
100~1,000만원미만	58.3	56.8	28.3
1,000만원~1억원미만	18.7	30.7	52.5
1억원이상	1.8	3.9	16.7
計	100.0	100.0	100.0

장 많아 38.1%이며, 다음은 15.4%의 1억 원~10억 원 미만 규모이며, 그 다음은 14.4%의 5천만 원~1억 원 미만 규모이다. 68~76년 간의 인프레의 영향이 약 3배가 됨으로 實質價值가 약 1/3정도로 줄어들었다고는 하나⁽¹⁾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도매업의 比重이 68년의 1.8%에서 71년에는 3.9%로 증대되고 76년에는 16.7%를 점하게 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도 도매업의 大規模化傾向을 알 수 있다. 年平均增加率면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도매업은 전후기 모두 증대되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比重이 가장 높은 규모는 200~500만 원 규모로서 31.0%이며 다음은 100~200만 원 규모의 19.1%, 그 다음은 500~1,000만 원 규모의 18.3%이다. 1,000만 원 이상의 店舗의 比重의 推移를 보면 68년에는 0.7%밖에 되지 않았으나 71년에는 2.1%로 微增한 다음 76년에는 16.6%로 늘어나서 후기에 있어서의 이의 大型化傾向을 알 수 있다.

68~76년 간의 都賣物價上昇率이 약 3배가 된다는 점을⁽¹⁾勘案한다 하더라도 小賣業의 大型化傾向을窺知할 수 있다.

〈表 2-12〉 販賣額規模別 店舗比重의 推移(소매업)

규 모	68	71	76
200만 원 이하	90.6	81.1	34.1
200~1,000만 원	8.7	16.8	49.3
1,000만 원 이상	0.7	2.1	16.6

(7) 業種別 店舗推移

76년의 경우 業種別都賣業의 比重을 보면 食品·飲料도매업의 比重이 가장 높아서 25.7%이고 다음은 기계기구도매업의 9.6%이고 그 다음은 농·축·수산물도매업의 9.4%이다. 衣類·裝身品도매업 및 전축재료도매업은 다 같이 6.3%이며 의약·화장품도매업은 5.6%로서 이들 업종이 5% 이상을 占하고 있다. 가장 낮은 업종은 3.3%의 家具·建具·什器이며 그 다음은 3.5%의 繊維品都賣業이다. 年平均增加率을 볼 때 전후기 모두 증가한 業種은 其他雜品도매업, 전축재료도매업, 가구·전구·집기도매업, 기계·기구도매업 및 食品·飲料도매업의 4업종이고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증가한 업종으로는 의약·화장품도매업, 화학제품도매업 및 농·축·수산물도매업의 3業種이며 전기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의류·장신품도매업 및 섬유품도매업의 2업종이며 양기 모두 감소한 업종은 광물·금속재료도매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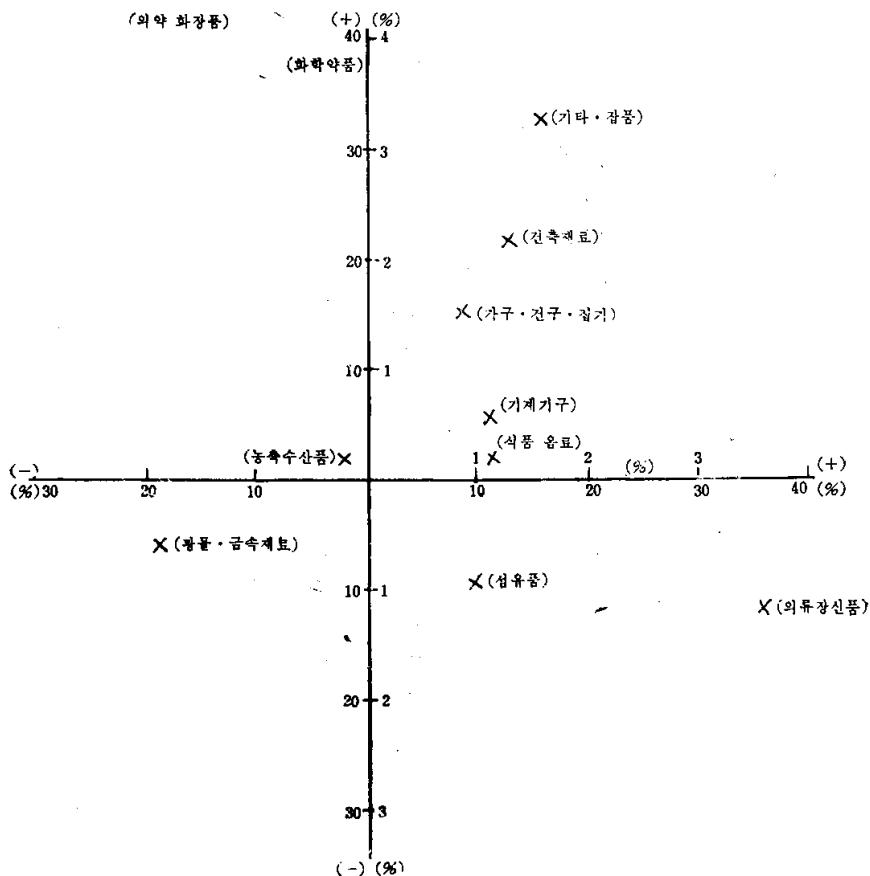
構成比면에서 볼 때 전후기 모두 증가한 업종은 기계·기구도매업, 전축재료도매업 기타

(1)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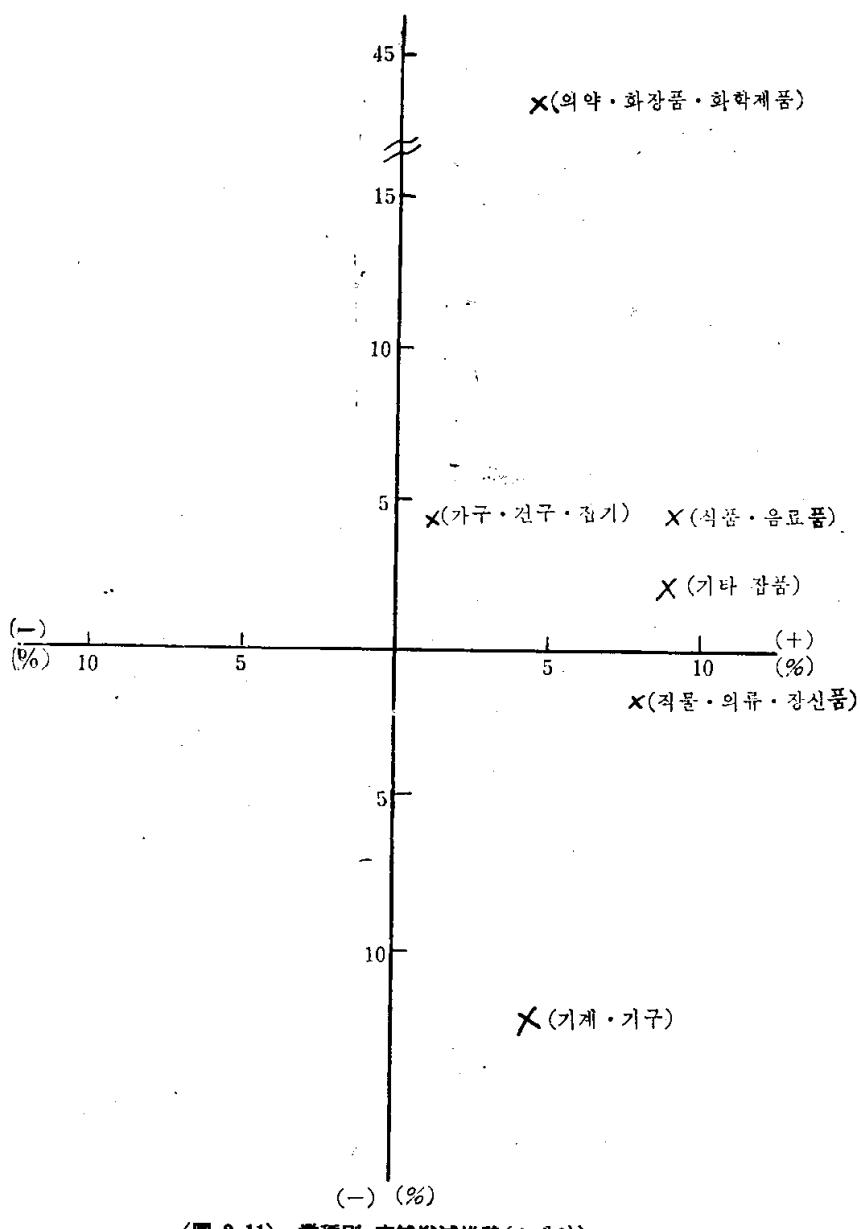
잡품도매업등이고 전기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후기에 증가한 업종은 家具・建具・什器도매업이다. 전기에는 比重이 낮아졌으나 후기에 증가한 업종은 의약・화장품도매업 및 화학제품도매업이 있고 전기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업종으로는 섬유품도매업, 의류・장신품도매업, 식품・음료도매업등의 업종이 있고, 전후기 모두 감소한 업종은 農・畜・水產物도매업 및 鐵物・金屬材料도매업의 두업종이다.

小賣業의 경우 76년의 業種別店舗比重을 보면 食品・飲料品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50.5%이고 다음은 기타잡품소매업의 22.6%이며 그 다음은 織物・衣類・裝身品소매업의 15.3%이며 家具・建具・什器소매업은 5.8%, 醫藥・化粧品・化學製品소매업은 4.9%, 機械器具소매업은 0.8%, 綜合小賣業은 0.2%를 占하고 있다.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때 織物・衣類・裝身品소매업 및 機械・器具소매업의 양업종이 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여타의 업종은 전후기 모두 증대하고



〈圖 2-10〉 業種別 店舗構成推移(도매업)



〈圖 2-11〉 業種別 店舗增減推移(소매업)

있어서 擴大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構成比면에서 볼때 전후기 모두 比重이 증대한 업종은 食品·飲料品小賣業 및 其他雜品小賣業의 양 업종이며 전기에 증대하였다가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織物·衣類·裝身品小賣業이며 반면에 후기에 증대한 업종은 가구·건구·침기소매업이며 전후기 모두 그 비중이 감소한 업종은 醫藥·化粧品·化學製品소매업, 機

〈表 2-13〉 産業分類別 店舗推移

(단위 : %)

産業分類	構成變化					年平均増減率	
	68	71	76	減率		71/68	76/71
				71	76		
一般都賣業	100.0	100.0	100.0	—	—	8.2	4.7
織維品都賣業	8.0	8.3	3.5	0.3	-4.8	9.8	-9.5
衣類裝身品	11.1	18.8	6.3	7.7	-12.5	35.6	-11.6
農畜水產物	14.6	10.9	9.4	-3.7	-1.5	-2.4	1.3
食品・飲料	26.9	28.5	25.7	1.6	-2.8	11.0	2.0
醫藥・化粧品	3.8	2.3	5.6	-1.5	3.3	-8.0	39.7
化學製品	2.8	1.9	4.6	-0.9	2.7	-4.5	39.9
鑄物・金屬材料	9.1	3.1	1.8	-6.0	-1.3	-18.9	-5.7
機械・器具	8.5	9.0	9.6	0.5	0.6	10.5	6.3
建築材料	3.4	3.7	6.3	0.3	2.6	12.8	21.9
家具・建具・什器	2.3	2.3	3.3	0	1.0	8.2	15.2
其他雜品	9.5	11.2	23.9	1.7	12.2	15.2	32.6
産業分類	構成變化					年平均増減率	
	68	71	76	増減		71/68	76/71
				71	76		
小賣業	100.0	100.0	100.0	—	—	7.1	4.6
醫藥品化粧品化學製品※	7.3	6.4	4.9	-0.9	-1.5	2.2	43.9
織物・衣類・裝身品	20.1	20.3	15.3	0.2	-5.0	7.6	-1.6
食品・飲料品	48.9	50.4	50.5	1.5	0.1	8.4	4.6
機械器具	5.8	5.4	0.8	-0.4	-4.0	4.6	-16.6
家具・建具・什器	6.1	5.2	5.8	-0.9	0.6	1.3	4.7
其他雜品	11.8	12.2	22.6	0.4	10.4	8.3	2.2
綜合小賣業	—	—	0.2	—	—	—	—

註: 1) 小賣業中 76년의 化學製品은 其他雜品小賣業에 包含됨.

2) 小賣業中 76년의 機械器具는 電氣機器이며 일 반 機械器具는 其他雜品小賣業에 包含됨.

械器具소매업의 2업종이다.

그런데 小賣業의 業種分類上 종래 기타잡품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화학제품은 76년에는 의약품 및 화장품업종에 포함되고 있고 機械器具類중에 포함되었던 一般機械器具는 76년에는 기타잡품소매업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變化가 크게 나타났으리라 類推된다. 또한 綜合小賣業이 76년부터는 별도의 1業種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앞으로 百貨店 및 수퍼·마켓등과 같은 大規模小賣業種의 분석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다시 産業細分類에 따른 도매업의 業種別店舗比重에 의한 上位 10位의 순위를 보면 76년

에는 酒類·飲料도매업이 12.4%로서 1位를 占하고 있고 2位는 12.2%를 占하는 식품도매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順位는 68년에는 같았으나 71년에는 양자의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3位는 機械器具도매업의 7.7%인데 이는 68년과 71년에는 각각 5位와 3位를 占하고 있었다. 4位는 전축재료도매업의 6.3%인데 이는 11位와 5位를 占하였다. 5位는 4.7%의 鐵物類도매업인데 이는 20位와 8位를 占하였으며 6位는 4.7%의 織物類도매업이고, 7位는 4.6%의 화학제품도매업이며, 8位는 化粧品도매업의 3.8%이며 9位는 3.6%의 衣類도매업이며 10位는 3.4%의 水產物도매업이다.

68~71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순위가 높아진 업종은 기계기구도매업, 전축재료도매업, 鐵物類도매업, 신발류도매업, 화장품도매업등이며 순위가 계속하여 낮아진 업종은 軟物類도매업이고 68년에는 낮았다가 71년에 높아진 다음 다시 76년에 順位가 낮아진 업종으로는 食品類도매업, 衣類도매업, 輸送用機器도매업, 家具·建具·什器도매업등이 있고, 71년에는 낮았다가 68년 및 76년에 그 순위가 높은 업종은 酒類·飲料도매업, 水產物도매업, 野菜·果實類도매업, 화학제품도매업, 紙類·紙製品도매업 및 의약품도매업등이다.

68~71년간에 順位에 변동이 없다가 76년에 높아진 업종은 織物類도매업, 家禽·家畜·肉類도매업, 및 鞠·帶物도매업등이며 낮아진 업종은 清涼飲料도매업이다. 燃料·油類도매업, 조미료도매업, 장신품도매업 및 설탕都賣業등은 76년에는 別個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順位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음 소매업의 業種別店舗比重에 따른 上位 10位의 順位를 보면 76년에는 食品類小賣業이 34.2%로서 1位를 차지하고 있고 衣類小賣業은 7.6%로서 2位, 燃料·油類소매업이 3位를, 곡물류소매업이 4位, 飲料소매업이 5位, 醫藥品소매업이 6位, 家具·建具·什器소매업이 7位, 文房具소매업이 8位, 裝身品소매업이 9位, 織物類소매업이 10位를 占하고 있다. 식품류소매업은 68년이래로 1位를 계속하여 차지하고 있으며 2位인 의류소매업은 68년 및 71년에는 각각 3位를 점하고 있어서 순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3위인 유류·연료소매업은 68년에는 16위였고 71년에는 11위를 차지하였다. 4위인 곡물류소매업은 68년에는 6위이었으나 71년에는 分類上 식품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順位를 알기는 어렵다. 5위인 음료소매업은 68년 및 71년에는 각각 2位를 占하였다.

68년이래 전후기 모두 계속하여 順位가 높아진 업종은 燃料·油類소매업, 사진기소매업, 家具·建具·什器소매업 및 鞠·帶物소매업이며 68년에는 순위가 낮았으나 71년에 높아진 다음 76년에 다시 낮아진 업종으로는 機械器具소매업, 家畜·家禽·肉類소매업, 신발류소매업, 鐵物類소매업, 醫藥·化粧品소매업, 書籍소매업 및 運動用具소매업등이 있으며 반대

〈表 2-14〉 売業細分類에 따른 業種別 店舖數의 順位

產業細分類	一般都賣業店舖數順位			產業細分類	小賣業店舖數順位		
	1968	1971	1976		1968	1971	1976
酒類·飲料	9.3 (1)	10.6 (2)	12.4 (1)	食 品 類	24.2 (1)	33.9 (1)	34.2 (1)
食 品 類	7.5 (2)	14.1 (1)	12.2 (2)	飲 料	16.4 (2)	12.8 (2)	5.9 (5)
穀 物 類	5.3 (3)	3.4 (9)	2.7 (11)	衣 類	6.5 (3)	12.0 (3)	7.6 (2)
衣 類	5.1 (4)	8.4 (3)	3.6 (9)	野 菜·果 實 類	4.8 (4)	(食品類에包含)	1.4 (14)
機 械 器 具	4.1 (5)	5.8 (4)	7.7 (3)	文 房 具	4.7 (5)	(書籍에包含)	2.9 (8)
清 凉 飲 料	3.8 (6)	4.7 (6)	1.2 (17)	教 物 類	4.3 (6)	(食品類에包含)	6.0 (4)
織 物 類 (絲)	3.8 (7)	—	4.7 (6)	水 化 產 物	3.3 (7)	1.8 (15)	1.2 (15)
水 產 物	1.3 (16)	1.1 (23)	—	醫 藥 品	2.7 (8)	5.2 (4)	0.6 (19)
野 菜·果 實 類	3.8 (9)	1.9 (18)	2.7 (12)	裝 身 品	2.3 (9)	—	4.3 (6)
化 學 製 品	3.4 (10)	2.4 (14)	4.6 (7)	織 物 類	2.2 (10)	1.9 (13)	2.4 (9)
建 築 材 料	3.2 (11)	5.1 (5)	6.3 (4)	機 械 器 具	2.1 (11)	2.3 (10)	2.0 (10)
燃 料·油 類	3.1 (12)	2.0 (17)	—	家 具·建 具·什 器	2.0 (12)	3.0 (7)	0.8 (16)
調 味 料	1.8 (13)	2.2 (16)	—	新 발 异	1.9 (13)	2.4 (9)	3.7 (7)
紙·紙 製 品	1.8 (14)	1.8 (19)	2.6 (13)	鐵 物 類	1.9 (14)	3.1 (6)	2.0 (11)
家 具·建 具·什 器	1.7 (15)	2.8 (11)	0.4 (19)	燃 料·油 類	1.7 (15)	2.7 (8)	2.0 (12)
輸 送 用 機 器	1.3 (17)	3.1 (10)	1.9 (14)	建 築 材 料	1.3 (16)	2.1 (11)	6.0 (3)
裝 身 品	1.2 (18)	2.7 (12)	—	家 禽·家 畜·肉 類	1.1 (17)	1.8 (16)	—
醫 藥 品	1.2 (19)	1.6 (21)	1.8 (15)	化 學 製 品	1.0 (18)	1.8 (12)	1.9 (13)
鐵 物 類	1.2 (20)	4.2 (8)	4.7 (5)	時 計	0.9 (19)	1.2 (18)	—
雪 糖	1.1 (21)	2.6 (13)	—	工 品	0.8 (20)	1.8 (14)	0.7 (17)
新 발 异	1.0 (22)	1.7 (20)	1.3 (16)	自 動 車 및 부 속	0.6 (21)	0.2 (23)	—
化 紧 品	1.0 (23)	1.6 (22)	3.8 (18)	自 轉 車 및 부 속	0.5 (22)	1.8 (17)	—
家 禽·家 畜·肉 類	0.2 (24)	1.0 (24)	0.6 (18)	寢 具 類	0.5 (23)	0.7 (19)	—
鞄·帶 物	0.2 (25)	0.5 (25)	0.2 (20)	鞄·帶 物	0.4 (24)	0.5 (21)	—
				書 籍	0.4 (25)	0.4 (22)	0.5 (20)
				運 動 用 具	0.3 (26)	4.5 (5)	0.7 (18)
				眼 鏡	0.2 (27)	0.6 (20)	0.4 (21)
				玩 具	0.2 (28)	(時計에包含)	0.2 (23)
				寫 真 機 및 부 속	0.2 (29)	(運動用具包含)	0.2 (24)
				樂 器	0.1 (30)	(時計에包含)	0.3 (22)
					0.1 (31)	0.2 (24)	—

로 68년에는 높았다가 71년에 낮아진 다음 다시 76년에 높아진 업종으로는 裝身品소매업, 및 時計類소매업 등이 있으며 계속하여 순위에 변동이 없는 업종은 食品類소매업이다. 68년 및 71년에는 순위에 변동이 없었으나 76년에 순위가 높아진 업종으로는 飲料소매업 및 衣 類소매업 등이 있으며 68년에는 높았다가 71년에는 낮아진 다음 76년에도 그대로 그 순위에 머물고 있는 업종으로는 水產物소매업이 있으며 반대로 68년에는 낮았다가 71년에 그 순위가 높아진 다음 76년에도 그대로 순위에 변동이 없는 업종은 織物類소매업이다. 또한 76년

에는 別揭資料가 없어서 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으로는, 電축재료소매업, 침구류소매업, 화학제품소매업, 藝工品소매업, 自動車·부속품소매업, 自轉車·부속품소매업 및 樂器소매업등이 있으며 71년에 别揭資料가 없어서 順位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으로는 야채·과실류소매업, 文房具소매업, 穀物類소매업, 眼鏡소매업, 玩具소매업 및 寫眞·부속품소매업등이 있다.

3. 常時從業員數의 推移

(1) 常時從業員數 및 1店當從業員數의 推移

76년 都小賣業에 종사하고 있는 常時從業員의 總數는 787,138人으로 이는 71년의 612,739人보다 5.7%포인트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511,660人보다 6.6%포인트가 증대된 것이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比重은 76년의 경우 11.9%인데 이는 71년에 對比하여 볼때 年平均增加率은 12.8%포인트增이며, 71년의 常時從業員數는 68년에 對比할때 1.4%포인트增에 지나지 않는다.

업종별로 볼때 76년의 都賣業에의 就業比重은 11.9%에 해당하는 93,679人이며 이는 71년의 9.3%인 57,043人보다 12.8%포인트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10.7%인 54,798人보다는 1.4%포인트增이다. 따라서 構成比면에서 볼때 전기에는 1.4%포인트가 감소되었으나 후기에는 1.2%포인트가 증대되어 후기에 있어서의 都賣業에의 常時從業員의 就業比重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都賣店舖의 擴大推移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매업의 경우 76년의 就業比重은 88.1%로서 693,459人인데 이는 71년의 90.7%인 555,692人보다는 5.0%포인트增이며 71년의 그것은 다시 68년의 89.3%인 456,862人보다는 7.2

〈表 3-1〉 常時從業員數推移

業種	從業員數				年平均增減率		1店當平均從業員數					
	68	71	76	構成比變動		71/68	76/71	68	71	76	增減	
				71	76						71	76
一般都賣業	10.7	9.3	11.9	-1.4	2.6	1.4	12.8	4.2	3.5	4.6	-0.7	1.1
小賣業	89.3	90.7	88.1	1.4	-2.6	7.2	5.0	1.7	1.7	1.8	0	0.1
計	100.0 511,660	100.0 612,735	100.0 787,138	—	—	6.6	5.7	1.8	1.8	1.9	0	0.1

注：1) 臨時雇·日雇除外(1971년 분)

%포인트增이어서 역시 就業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構成比면에서 볼때 전기에는 1.4%포인트增이었으나 후기에는 1.2%포인트減이어서 도매업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다음 店舗當平均從業員數를 보면 76년의 경우 도매업은 4.6人인데 이는 71년의 3.5人에對比할때 0.4人增이나 71년의 그것을 68년의 4.2人에對比하여보면 0.7人減이다. 이는 店舗數의 경우와 같이 分類基準의 차이에 起因하는 것으로 類推된다.

소매업의 경우 76년의 그것은 1.8人인데 이는 71년의 1.7人보다 0.1人增이다. 68~71년간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서도 都賣就業比重의 增大傾向을 엿볼 수 있다.

(2) 業種別 店舗當當時從業員數의 推移

도매업의 경우 店舗規模를 나타내는 店舗當當時從業員數를 보면 76년의 경우 全都賣業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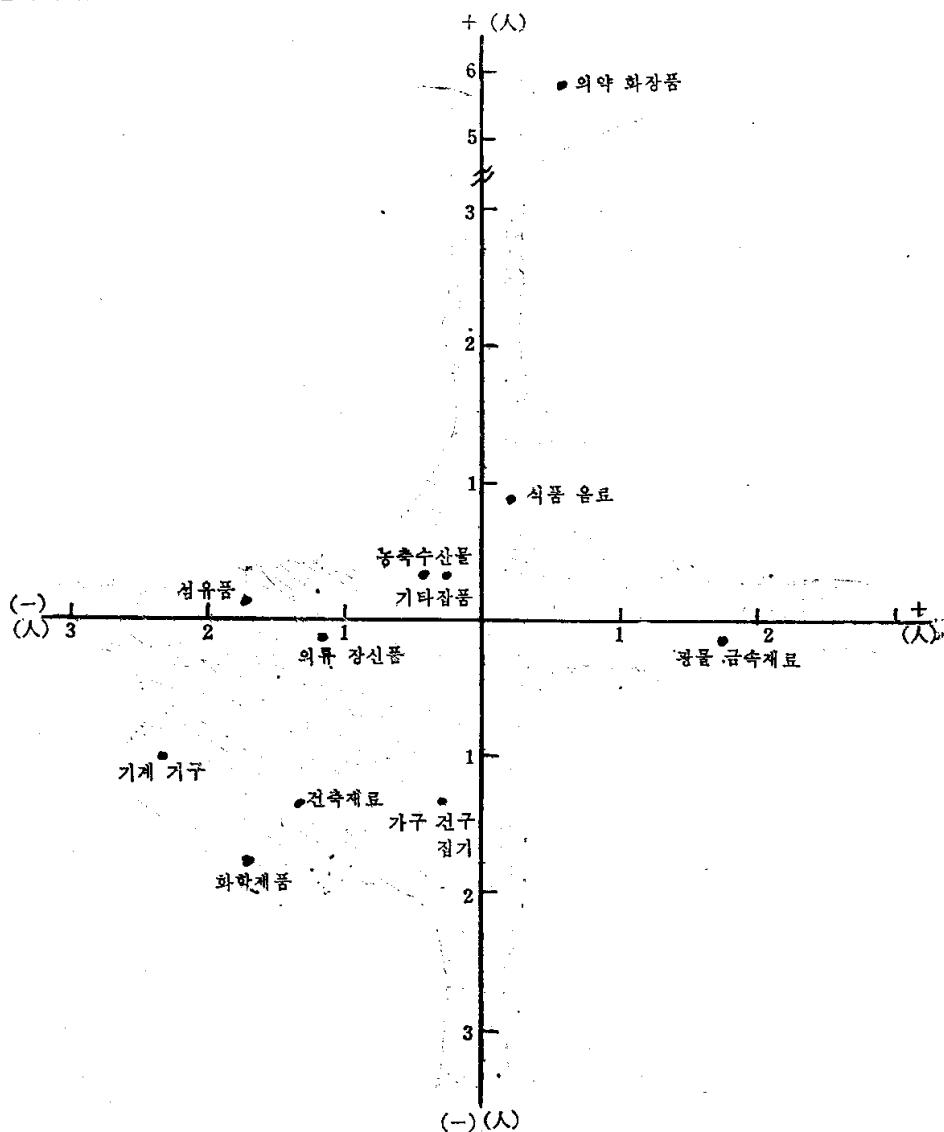
〈表 3-2〉 業種別 1店舗當當時從業員數의 推移

產業分類	當時從業員數(人)			店舗數(店)			1店舗當時從業員數(人)			增減	
	68	71	76	68	71	76	68	71	76	71	76
都小賣業計	511,660	612,735	787,138	277,293	336,900	413,911	1.8	1.8	1.9	0	0.1
一般都賣業計	54,798	57,043	93,679	13,193	16,429	20,260	4.2	3.5	4.6	-0.7	0.4
織維品	4,267	3,312	2,992	1,051	1,360	711	4.1	2.4	4.2	-1.7	1.8
衣類·裝身品	5,812	8,833	5,008	1,470	3,040	1,273	4.0	2.9	3.9	-1.1	1.0
農·畜·水產物	5,468	4,409	5,872	1,926	1,789	1,901	2.8	2.5	3.1	-0.3	0.6
食品·飲料	11,520	16,201	21,525	3,552	4,724	5,199	3.2	3.4	4.1	0.2	0.7
醫藥·化粧品	4,107	3,188	16,105	503	382	1,141	8.2	8.8	14.1	0.6	5.3
化學製品	2,029	1,308	3,506	363	314	941	5.6	4.2	3.7	-1.4	0.5
鑄物金屬材料	6,315	3,678	1,935	1,197	517	370	5.3	7.1	5.2	1.8	-1.9
機械·器具	6,577	5,198	9,443	1,120	1,472	1,936	5.9	3.5	4.9	-2.4	1.4
建築材料	2,514	2,722	5,557	442	612	1,281	5.7	4.4	4.3	-1.3	-0.1
家具·建具·什器	1,493	1,763	2,449	302	376	661	4.9	4.7	3.7	-0.2	-1.0
其他雜品	4,696	6,431	19,287	1,267	1,843	4,846	3.7	3.5	4.0	-0.2	0.5
小賣業計	456,862	555,692	693,459	264,100	320,471	393,651	1.7	1.7	1.8	0	0.1
各種商品小賣業 (綜合小賣業)	31,595	33,889	130,031 (8,084)	19,322	20,615	65,845 (654)	1.6	1.6	2.0 (12.4)	0	0.4
織物衣類裝身品	100,431	125,437	110,765	53,082	65,147	60,043	1.9	1.9	1.8	0	-0.1
食品·飲料	210,692	261,517	320,012	129,102	161,581	198,866	1.6	1.6	1.6	0	0
各種機器	28,429	31,035	5,477	15,329	17,465	2,997	1.9	1.8	1.8	-0.1	0
家具·建具·什器	30,435	32,649	46,771	16,041	16,690	22,643	1.9	2.0	2.3	0.1	0.3
其他雜品	55,280	71,165	80,403	31,224	38,973	43,257	1.8	1.8	1.9	0	0.1

注 : ()의 數字는 內書임.

均인 4.6人을 上廻하는 業種은 醫藥・化粧品도매업이 가장 많아서 14.1人이며 다음은 5.2人의 鎌物・金屬材料도매업이며 그 다음은 4.9人の 機械器具도매업이다. 가장 낮은 업종은 3.1人の 農畜水產物도매업이며 그 다음은 각각 3.7人인 化學製品도매업 및 家具・建具・什器도매업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업종은 3.9人の 衣類・裝身品도매업이다. 餘他의 업종은 모두 4人이상이다.

전기에 있어 증가경향이 가장 큰 업종은 1.8人增의 鎌物・金屬材料도매업이며 후기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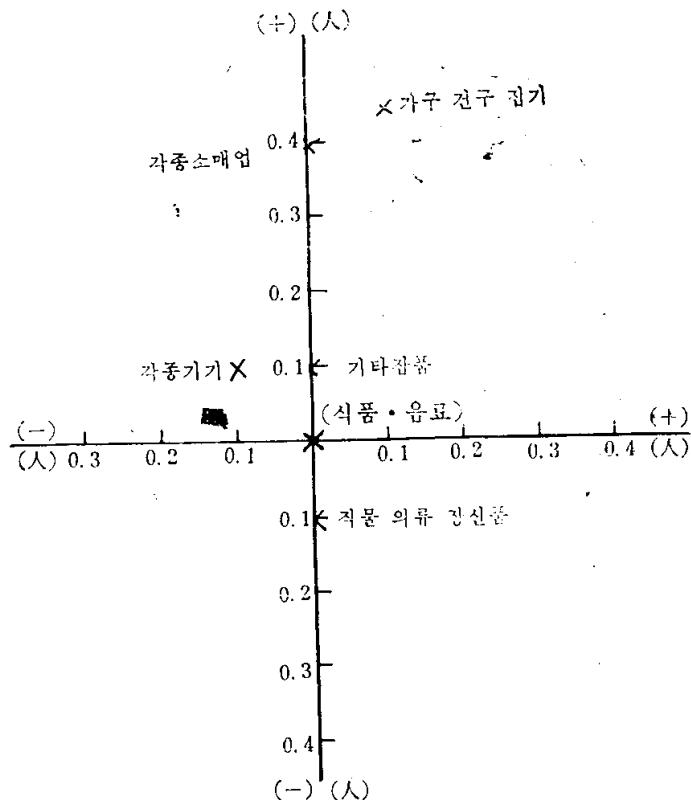


〈圖 3-1〉 業種別 1店當當時從業員數增減(일반도매업)

이 가장 큰 업종은 5.9人增의 醫藥·化粧品도매업이다. 전후기 모두 증대한 업종으로는 食品·飲料도매업과 醫藥·化粧品도매업이 있고, 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증가한 업종으로는 纖維品도매업, 農畜水產物도매업 및 其他雜品도매업등이 있고, 전기에는 증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된 업종으로는 鎳物·金屬材料도매업이 있다. 또한 전후기 모두 감소한 업종으로는 衣類·裝身品도매업, 化學製品도매업, 機械器具도매업, 建築材料도매업 및 家具·建具·什器도매업이 있다.

다음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小賣業平均 1店當當時從業員數는 1.8人인데 이를 上廻하는 업종은 家具·建具·什器소매업의 2.3人과 各種商品소매업의 2.0人 및 其他雜品소매업의 1.9人 3업종이다. 各種商品소매업에 속하는 綜合小賣業은 예외적으로 12.4人이다. 가장 적은 업종은 1.6人の 食品·飲料소매업이며 餘他의 업종은 모두 全國平均과 같다.

전후기 모두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家具·建具·什器소매업뿐이며,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증가한 업종은 各種機械器具소매업이 있고, 변동이 없는 업종으로는 食品·飲料소매업이 있다. 전기엔 변동이 없었으나 후기에 증대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各種商品소매업 및



〈圖 3-2〉 業種別 1店當當時從業員數增減(소매업)

기타잡품소매업의 두 업종이 있으며, 반대로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織物·衣類·裝身品소매업이다. 이에서 보듯이 小賣業의 경우에는 規模別變動이 그다지 크지 않고 아직도 小賣業 전체로서는 停滯的樣相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年間販賣額의 推移

(1) 年間販賣額 및 1店當年間販賣額의 推移

1975년 7월 1일부터 1976년 6월 30일까지(이하 76년으로 略稱함)의 經常價格에 의한 年間都小賣販賣額은 5兆 7,589億 1,900萬원인데 이중 42.5%인 2兆 4,486억 6,300만원은 都賣去來額이며 57.5%인 3兆 3,102億 5,600만원은 小賣販賣額이다.

이러한 76년의 都小賣去來額을 1970년 7월 1일부터 1971년 6월 30일까지(이하 71년으로 略稱함)의 都小賣去來額 1兆 258億 5,900만원에 對比하여보면 이는 年平均 92.3%포인트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1967년 7월 1일부터 1968년 6월 30일까지(이하 68년으로 略稱함)의 都小賣去來額 4,245億 9,800萬원에 對比하면 年平均 47.2%포인트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不變價格에 의하면 전기의 年平均實質增加率은 41.2%포인트增이며 후기의 그것은 25.7%포인트增이어서 후기에는 增勢의 鈍化傾向이 엿보이는 데 이는 都賣去來規模의 擴大에 따른 增勢의 鈍化에 起因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都賣販賣額의 比重은 전기에는 2.0%포인트減이나 후기에는 1.8%포인트增이어서 역시 후기의 都賣擴大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小賣去來額은 76년에는 3兆 3,102億 5,600만원으로서 이는 71년의 6,079億 5,800만원에 對比하면 年平均 88.9%포인트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2,434억 400만원에 對比하면 年平均 49.9%포인트增이다. 그러나 不變價格으로 보면 전기에는 43.8포인트增이나 후기에는 24.3%포인트增이어서 역시 增勢가 鈍化되고 있다. 이의 構成比는 都賣去來額과는 반대로 전기에는 20%포인트增이나 후기에는 1.8%포인트減을 나타내고 있다.

(2)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

76년의 業種別都賣去來額比率을 보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한 業種은 23.1%의 食品·飲料品도매업이며 다음은 12.2%의 建築材料도매업이고 그 다음은 11.2%의 機械器具都賣業이다. 가장 낮은 업종은 1.7%의 家具·建具·什器도매업이다.

構成比면에서 볼때 전후기 모두 年間販賣額이 증대된 업종은 食品·飲料도매업뿐이며, 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증대한 업종은 化學製品도매업, 기계기구도매업 및 其他도

〈表 4-1〉 年間販賣額의 推移

(단위 : 100만원, %)

	年間販賣額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1968	1971	1976	68	71	76	增 71	減 76	71/68	76/71
都小賣業計	424,598	1,025,859 (949,869)	5,758,919 (2,173,178)	100.0	100.0	100.0	—	—	47.2 (41.2)	92.3 (25.7)
一般都賣業	181,194	417,901 (386,945)	2,448,663 (924,024)	42.7	40.7	42.5	-2.0	1.8	43.5 (37.9)	97.2 (27.8)
小賣業	243,404	607,958 (562,924)	3,310,256 (1,249,153)	57.3	59.3	57.5	2.0	-1.8	49.9 (43.8)	88.9 (24.3)

注 : ()는 1968년의 都賣物價指數를 100으로 換算한 不變值임 (71=108.0% 76=265.0%)

매업이며 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변동이 없는 업종은 醫藥·化粧品도매업이며 전기에는 증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織維品도매업, 衣類·裝身品도매업, 建築材料도매업 및 家具·建具·什器도매업등이다. 이에 대해 餘他의 업종은 전후기 모두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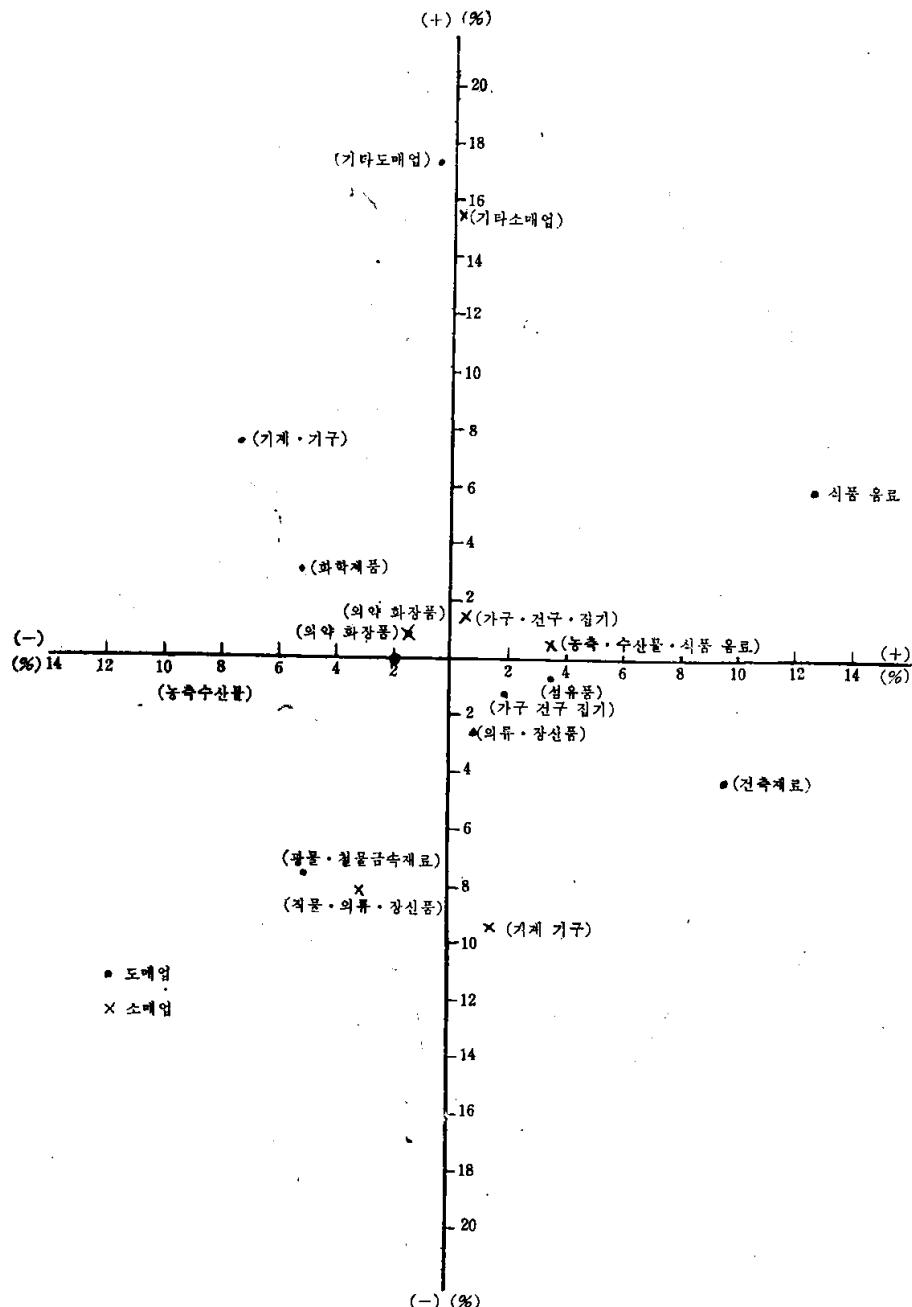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때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하나도 없으며 전기에 감소한 업종으로는 農·畜·水產物도매업, 化學製品도매업 및 機械器具도매업이 있는데 화학제품도매업은 17.5%포인트나 감소되고 있다.

다음 소매업의 경우 76년의 小賣去來額上 차지하는 業種別比重을 보면 가장 높은 업종은 農·畜·水產物·食品·飲料소매업의 37.6%이며 다음은 14.6%의 織物·衣類·裝身品소매업이고 그 다음은 8.5%의 醫藥·化粧品·化學製品소매업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0.8%의 機械器具소매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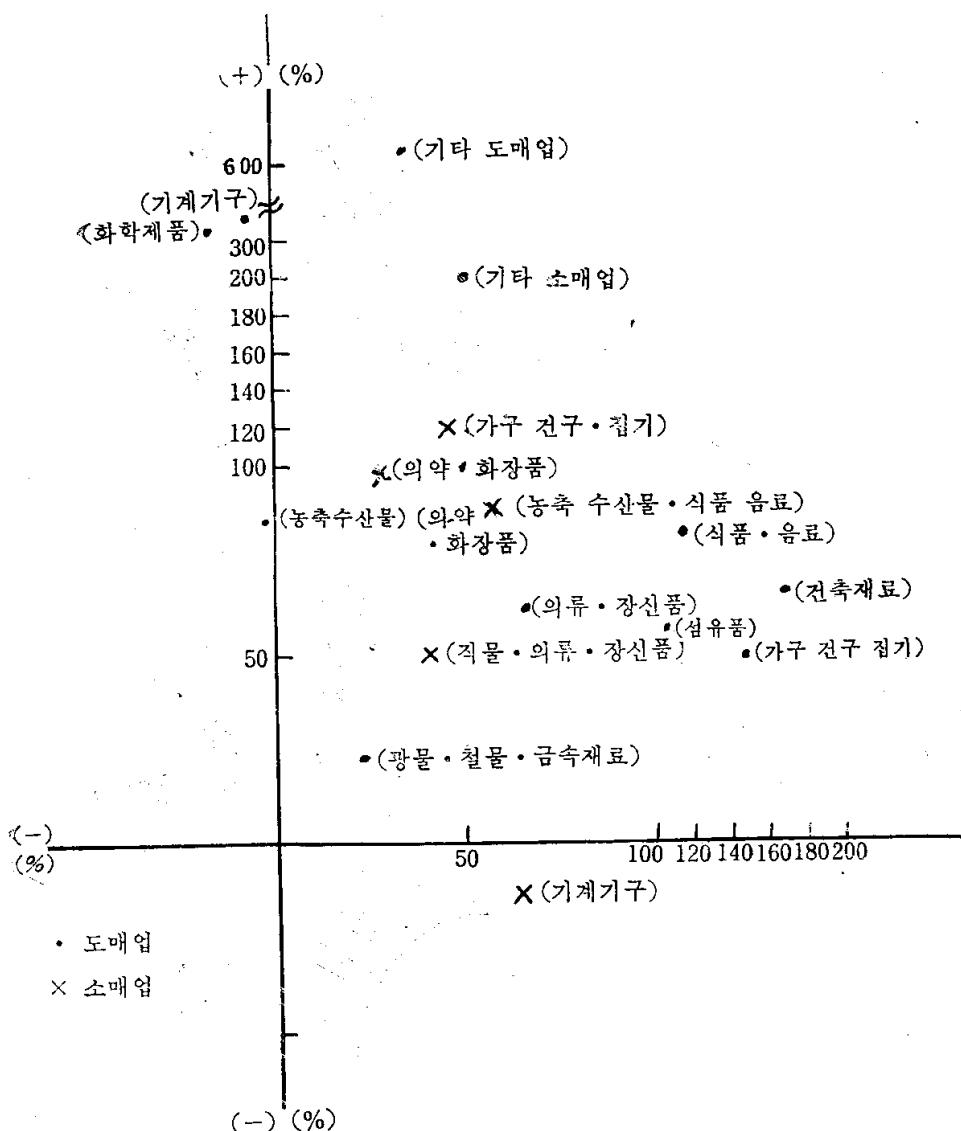
구성비면에서 볼때 전후기 모두 增加推移를 나타내는 업종은 農·畜·水產物, 食品·飲料品소매업, 家具·建具·什器소매업 및 기타 소매업등이며 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후기에 증가한 업종으로는 醫藥·化粧品소매업이 있고 전기엔 증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업종으로는 機械器具소매업이 있으며 전후기 모두 그 比重이 감소한 업종은 織物·衣類·裝身品소매업인데 전기에는 3.0%포인트減, 후기에는 8.1%포인트減이다.

다음 產業細分類에 따른 業種別年間販賣額構成上의 上位 10位의 順位를 보면 76년의 경우는 1位는 建築材料도매업의 12.2%이고 2位는 11.9%의 食品類도매업이고 3位는 11.1%의 飲料品도매업이며, 4位는 9.4%의 機械器具도매업이고 5位는 4.5%의 鐵物類도매업, 6位는 4.3%의 化學제품도매업, 7位는 3.9%의 의약품도매업, 8位는 3.8%의 織物類도매업, 9位는 3.2%의 衣類도매업이고 10位는 2.9%의 穀物도매업의 순으로 되어 있다.

1位인 건축재료도매업은 71년에도 19.7%로서 역시 1位이었으나 68년에는 5.7%로서 7位



〈圖 4-1〉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構成比)



<圖 4-2> 業種別 年間販賣額(增減率)

에 지나지 않았었던 2位인 食品類도매업은 9位와 15位에서 크게 浮上하였고 3位인 飲料品 도매업은 2位와 10位를 占하였으며 4位인 機械器具는 11位와 1位를 占하였으며 5位인 鐵物類도매업은 12位와 8位를 占하고 있어서 전후기에 있어서의 順位의 变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68년에 1位이었던 기계기구도매업은 71년의 11位를 거쳐 4位로 낮아지고 2位이었던 絲類도매상은 22位를 거쳐 17位로 脱落되었고 3位인 水產物도매업은 17位를 거쳐

〈表 4-2〉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

(단위 : 100만원, %)

業種別	年間販賣額構成比				年平均增減率		
	1968	1971	1976	%増減		71/68	76/71
				71	76		
都小賣業計	424,598	1,025,859	5,758,919	—	—	47.2	92.3
一般都賣業	181,194	417,901	2,448,663	—	—	43.5	97.2
織維品	8.3	11.9	5.3	3.6	-6.6	77.8	53.3
衣類·裝身品	5.3	6.6	4.5	1.3	-2.1	62.4	59.6
農·畜·水產物	17.2	7.2	6.5	-10.0	-0.7	-1.1	85.6
食品·飲料	14.4	28.5	23.1	14.1	5.4	119.1	74.9
醫藥·化粧品	7.7	5.6	5.6	-2.1	0	22.6	98.1
化學製品	6.5	1.3	4.3	-5.2	3.0	-17.5	326.5
鐵物·鐵物·金屬材料	16.9	11.9	4.3	-5.0	-7.6	20.8	22.0
機械器具	11.4	3.7	11.2	-7.7	7.5	-8.4	335.8
建築材料	6.6	16.5	12.2	9.9	-4.3	158.2	66.3
家具·建具·什器	1.3	2.9	1.7	1.6	-1.2	136.0	49.3
其他都賣業	4.4	3.9	21.3	-0.5	17.4	32.6	641.2
小賣業	243,404	607,958	3,310,256	—	—	49.9	88.9
織物·衣類·裝身品	25.7	22.7	14.6	-3.0	-8.1	40.5	49.9
農·畜·水產物	33.8	37.3	37.6	3.5	0.3	58.4	89.7
食品·飲料	9.6	7.9	8.5	-1.7	0.6	34.9	97.0
醫藥·化粧品	8.6	10.2	0.8	1.6	-9.4	65.5	-11.3
化學製品	7.5	7.0	8.3	0.5	1.3	44.2	110.3
機械器具	14.8	14.9	30.2	0.1	15.3	50.6	200.2
家具·建具·什器	(3.3)	(2.7)	(—)	(-06)	(—)	(34.1)	(—)
其他小賣業	(3.0)	(4.4)	(12.8)	(1.4)	(8.4)	(88.8)	(298.7)

11位로 4위인 燃料·油類도매업은 71년에는 3위가 되었으나 76년에는 順位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으며 5위인 화학제품도매업은 14위를 거쳐 6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流通過程上 都賣段階에서의 中間商의 減縮이 이루어져 原去來가 이루어지거나 農水產物의 경우에는 系統出荷가 擴大된 때문이다.

소매업의 경우 上位 10位의 順位를 보면 76년의 경우 1位는 20.3%의 食品類소매업이고 2位는 12.8%의 燃料·油類소매업이며 3位는 9.8%의 谷物소매업, 4位는 각각 7.5%의 衣類소매업 및 醫藥品소매업이 同位이며 6位는 6.6%의 家具·建具·什器소매업, 7位는 3.5%의 織物소매업, 8位는 3.1%의 飲料品소매업, 9位는 2.5%의 獸肉·家禽肉類소매업 및 10位는 1.8%의 鐵物類소매업의 順으로 되어 있다.

1위인 식품류소매업은 71년에는 9위, 68년에는 4位에서 漸上하였고 2위인 燃料·油類소

〈表 4-3〉 産業細分類에 따른 年間販賣額의 順位

産業細分類	一般都賣業			産業細分類	小賣業			
	年間販賣額順位				年間販賣額順位			
	1968	1971	1976		1968	1971	1976	
機械器具	11.2 (1)	2.4(11)	9.4 (4)	衣類	10.8 (1)	20.1 (1)	7.5 (4)	
絲(毛絲·羊毛) 綿(綿絲)	11.1 (2)	0.2(22)	1.1(17)	穀物	9.0 (2)	2.5(13)	9.8 (3)	
水產物	9.8 (3)	0.7(17)	2.5(11)	織物	8.4 (3)	3.7 (7)	3.5 (7)	
燃料·油類	8.4 (4)	12.4 (3)	—	食品類	8.2 (4)	3.6 (9)	20.3 (1)	
化學製品	6.2 (5)	1.6(14)	4.3 (6)	醫藥品	5.7 (5)	3.2(11)	7.5 (4)	
穀物	5.7 (6)	6.6 (4)	2.9(10)	機械器具	5.4 (6)	11.3 (2)	0.8(16)	
建築材料	5.7 (7)	19.7 (1)	12.2 (1)	飲料品	4.8 (7)	1.6(16)	3.1 (8)	
鐵物	5.7 (8)	2.0(12)	4.5 (5)	家具·建具·什器	4.3 (8)	3.7 (8)	6.6 (6)	
衣類	50 (9)	3.2(10)	3.2 (9)	肉類	4.2 (9)	1.5(18)	2.5 (9)	
飲料品 (酒類)	4.6(10) (4.1)—	14.4 (2) (13.2)	11.1 (3) (10.2)	水產物	3.9(10)	2.9(12)	0.9(15)	
(清涼飲料)	(0.5)—	(1.2)	(1.1)	建築材料	3.3(11)	4.9 (6)	—	
織物類	4.3(11)	6.1 (7)	3.8 (8)	燃料·油類	3.1(12)	8.0 (4)	12.8 (2)	
醫藥品	3.7(12)	6.5 (5)	3.9 (7)	輸送用機器 (自動車 및 부속품)	3.1(13) (2.3)	8.3 (3) (2.6)	—	
輸送用機器	3.2(13)	1.6(15)	1.8(12)	化學製品	3.0(14)	1.8(15)	—	
野菜·果實	1.6(14)	0.5(20)	0.8(18)	穀物類	2.8(15)	7.3 (5)	1.8(10)	
食品類	1.5(15)	3.4 (9)	11.9 (2)	野菜·果實	2.4(16)	0.8(21)	0.9(17)	
紙·紙製品	1.2(16)	0.6(19)	1.8(13)	裝身品	2.2(17)	1.5(17)	1.0(13)	
雪糖	1.2(17)	6.3 (6)	—	文房具	2.2(18)	1.0(19)	1.5(11)	
신발類	1.2(18)	1.2(16)	1.2(16)	신발類	2.0(19)	2.1(14)	1.5(12)	
化粧品	0.8(19)	0.3(21)	1.7(18)	時計	1.3(20)	1.0(20)	0.7(19)	
家具·建具·什器	0.7(20)	3.6 (8)	1.4(15)	化粧品	1.1(21)	0.5(23)	0.9(14)	
裝身品	0.5(21)	0.6(18)	0.5(19)	書籍	0.7(22)	0.7(22)	0.8(18)	
調味料	0.4(22)	1.7(13)	—	化妆品	0.6(23)	0.4(24)	—	
家禽·家畜·肉類	0.1(23)	0.2(23)	0.4(20)	鞄·帶物	0.6(24)	0.4(25)	0.4(20)	
				運動用具	0.3(25)	0.2(27)	0.3(21)	
				工藝品	0.3(26)	0.1(28)	—	
				眼鏡 및 부속	0.2(27)	0.3(26)	0.2(23)	
				寫真機 및 부속	0.2(28)	3.4(10)	0.3(22)	
				玩具	0.2(29)	0.1(29)	0.1(24)	

매업은 4위와 12위이었고, 3위인 穀物소매업은 13위와 2위, 4위인 衣類소매업은 71년과 68년에 각각 1위이었고, 同位인 醫藥品소매업은 11위와 5위에서 浮上하였다. 이에서 미루어 소매업의 경우에도 業種別順位에 상당한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8년의 1~5위까지의 업종은 3위이었던 織物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5順位이내에 들고 있어서 上位圈에 큰 變動은 없이 業種別順位에는 비교적 安定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常時從業員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當時從業員規模에 따른 都賣業의 年間販賣額의 比重을 보면 10人이상규모가 47.7%이며 다음은 5~9人규모로서 21.9%를 占하며 3~4人규모는 16.9%이고 1~2人규모는 13.5%를 占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規模가 커짐에 따라 年間販賣額의 占有比重은 점차 높아지는 傾向을 가지고 있다.

比重의 增減傾向을 보면 전기에는 10人이상의 규모의 比重만이 11.3%포인트 감소된 반면 餘他의 규모는 모두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1~2人 및 3~4人규모의 소규모 매업의 比重은 각각 5.6%포인트 및 9.2%포인트 감소된 반면 5~9人규모는 3.3%포인트增, 10人이상규모는 18.1%포인트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후기에 이르러서 都賣業의 大型化의 傾向이 있음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에 있어서의 10人이상의 규모의 年平均增加率은 22.2%로서 이 규모만이 年平均增加率을 下廻하였으나 후기에는 오히려 이 규모의 年間販賣額만이 年平均增加率을 훨씬 上廻하는 169.4%포인트로 크게伸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76년의 경우 1~2人규모의 比重이 압도적이어서 64.5%를 占하고 있고 다음은 3~4人規模의 18.8%이고, 그 다음은 10人이상의 규모로서 8.5%이며 5~9人이상규모는 8.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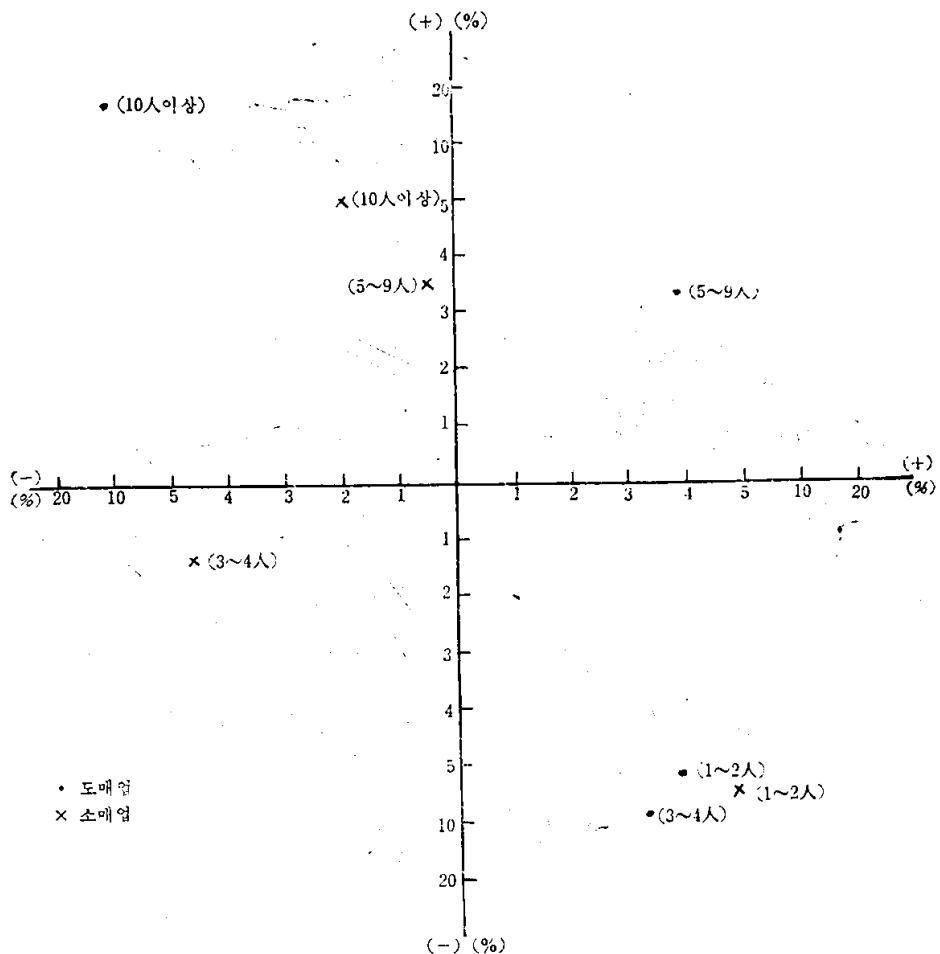
構成比의 增減傾向을 볼때 전기에는 1~2人규모의 比重만이 7.0%포인트 증가된 반면 餘他의 규모는 모두 감소되고 있는데 대해 후기에는 1~2人규모는 7.0%포인트減, 3~4人규모는 1.2%포인트減인데 대해 이 이상의 규모는 모두 증대하고 있다. 즉 5~9人규모는 2.6%포인트增이며 10人이상규모는 5.6%포인트增으로서 규모가 큰 소매상의 去來比重의 增大倾向을 알수 있는데 이는 小賣業의 大型化倾向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年平均增加率을 보면 전기의 경우 5~9人규모의 소매업의 去來伸張率은 小賣業平均인 49.9%보다 5.6%포인트가 낮은 44.3%밖에 되지 않으며 10人이상규모의 그것은 32.6%포

〈表 4-4〉 從業員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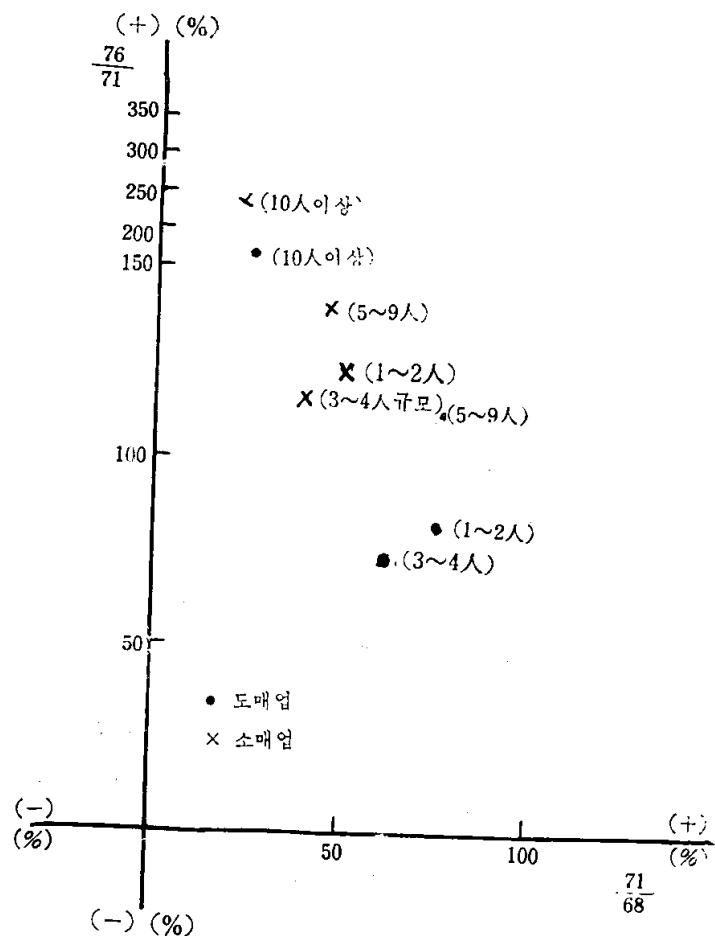
(단위 : %)

從業員 規 模	一 般 都 賣 業				年平均增加率		小 賣 業				年平均增加率	
	68	71	76	增 減		71/68	76/71	68	71	76	增 減	
				71	76						71	76
平 均	100.0	100.0	100.0	—	—	43.5	97.2	100.0	100.0	100.0	—	—
1~2人	15.3	19.1	13.5	3.8	-5.6	62.8	62.6	64.5	71.5	64.5	7.0	-7.0
3~4人	22.5	26.1	16.9	3.6	-9.2	55.8	55.7	24.7	20.0	18.8	-4.7	-1.2
5~9人	21.3	25.2	21.9	3.9	3.3	57.7	81.7	6.0	5.6	8.2	-0.4	2.6
10人이 상	40.9	29.6	47.7	-11.3	18.1	22.2	169.4	4.8	2.9	8.5	-1.9	5.6
											17.3	298.1



〈圖 4-3〉 常時從業員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構成比)

인트가 낮은 17.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면 5~9人규모는 소매업평균보다 50.2%포인트나 높은 139.1%이고, 10人이상규모는 209.2%포인트나 높은 298.1%의 높은伸張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후기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大型化에 따른去來比重의 增大傾向도 看取할수 있다.



〈圖 4-4〉 當時從業員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年平均增減率)

5. 販賣効率의 推移

(1) 總効率의 推移

1店當年間販賣額 및 常時從業員 1人當販賣額에 따른 販賣效率 즉 販賣生產性 내지 販賣能率의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店當年間販賣額을 보면 都賣業의 경우 76년에는 13億 2,086萬 2,000원인데 이는 71년의 2,543萬 7,000원에 對比하면 年平均 75.0%포인트增이나 71년의 그것은 68년의 1,373萬 4,000원보다는 平均 28.4%포인트增이다. 그러나 68年不變價格으로 보면 전기의 增減率은 年平均 23.85%포인트增이었으나 후기에는 18.8%포인트增을 나타내어 실질적인 면에서 후기에 있어서의 販賣能率의 增勢의 鈍化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76년의 小賣業의 1店當販賣額은 840만 9,000원인데 이는 71년의 189만 7,000원보다는 68.7%포인트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92만 2,000원보다는 35.2%포인트增이다. 그러나 68년 不變價格에 의한 實質로 보면 전기의 年平均增加率은 30.1%포인트增이며, 후기는 16.1%포인트增으로서 후기에는 增勢가 鈍化되고 있다.

이에서 보면 도매업의 1店當販賣額의 年平均伸張率은 전기에는 小賣業의 그것보다 낮았으나 후기에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곧 후기에 있어서의 都賣業의 大型化와 擴大推移를 示唆하는 것이다.

다음 1人當販賣額을 보면 76년의 도매업의 그것은 2,613만 9,000원으로서 이는 71년의 732만 6,000원보다는 年率 51.4%포인트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330만 6,000원보다는 年率 40.5%增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68년不變價格으로 보면 전기는 35.1%포인트增이며 후기는 9.1%포인트增이어서 후기에는 增勢가 鈍化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매업의 그것은 76年에는 477만 4,000원이어서 71년의 109만 4,000원보다는 年率 67.3%포인트增이나, 71년의 그것은 68년의 53만 3,000원에 對比하면 年率 35.1%포인트增이다. 그러나 68년不變價格으로 보면 전기에는 年率 30.0%포인트增이었으나 후기에는 年率 15.6%포인트增이어서 역시 增勢가 鈍化되고 있다. 이와 같은 후기에 있어서의 增加率의 一般的의 鈍化傾向은 전기에 있어서의 都小賣去來額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이 아닌가 類推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成長曲線은 成長度가 높아짐에 따라 成長率이 감소되어 鈍化되는 傾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規模別販賣効率의 推移

〈表 5-1〉 販賣效率의 推移

(단위: 천 원)

區 分 年 度	都 賣 業				小 賣 業			
	1店當 販賣額	年 率	1人當 販賣額	年 率	1店當 販賣額	年 率	1人當 販賣額	年 率
68	13,734	—	3,306	—	922	—	533	—
71	25,436 (23,552)	28.4 (23.8)	7,326 (6,783)	40.5 (35.1)	1,897 (1,756)	35.2 (30.1)	1,094 (1,013)	35.1 (30.0)
76	120,862 (45,608)	75.0 (18.8)	26,139 (9,864)	51.4 (9.1)	8,409 (3,173)	68.7 (16.1)	4,774 (1,82)	67.3 (15.6)

()는 68년을 100으로 한 换算值임.

當時從業員規模別 1店當年間販賣額 및 1人當販賣額에 따른 規模別販賣額效率의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店當年間販賣額에 따른 76년의 平均效率과 規模別隔差比率을 보면 1~2人규모는 약 3割臺의 수준이며, 3~4人규모는 약 6割臺의 수준이며, 5~9人규모는 1.5倍의 수준이고, 10人이상의 규모는 5.9倍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서 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1店當販賣額의 效率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大型化에 따른 販賣去來吸引規模의 크기에 比例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기에 있어서의 販賣效率의 增減推移를 보면 5~9人규모가 가장 높아 年率 42.8%포인트增인데 대해 10人이상의 그것은 年率 21.7%포인트增으로서 가장 낮은데 이는大型化에 對應하는去來吸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후기에도 역시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5~9人규모의伸張率이 가장 높아서 年率 62.5%포인트增인데 대해 10人이상의 규모는 53.7%포인트增이다. 가장 낮은 규모는 41.8%포인트增의 1~2人규모이다.

다음 1人當販賣額을 기준으로 한 76년의 販賣效率을 보면 規模別隔差는 그다지 크지 않는데 1~2人 및 3~4人 규모의 그것은 共히 平均效率의 8割臺의 수준에 있다. 5~9人규모의 그것은 1.1倍의 수준에 있으며, 10人이상의 규모도 1.1倍의 수준이어서 이와 小規模小賣業間의 販賣效率隔差는 0.3%포인트의 차이밖에 없다. 이는 곧 아직 大規模의 都賣業이 規模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示唆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販賣效率의 增減傾向면에서도 10人이상 규모의 그것은 전기와 후기 모두 餘他의 규모에 비해 낮다.

다음 小賣業의 경우 1店當年間販賣額을 통한 規模別販賣efficiency을 보면 1~2人규모는 平均efficiency의 0.7倍밖에 되지 않으며, 3~4人규모는 2.1倍이며, 5~9人규모는 5.6倍이며, 10人이상 규모는 23.4倍이다. 이에서 볼때 1~2人규모와 10人이상규모간의 規模隔差는 무려 22.7倍의 차이가 있다.

規模別 伸張率을 보면 전기에는 1~2人 규모가 가장 높아서 43.0%포인트增이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장율은 낮아져서 10이상 규모는 8.9%포인트減이다. 그러나 후기에는 5~9人 규모의 伸張率이 가장 높아서 이는 125.3%포인트增을 나타내며, 10人이상의 규모도 86.6% 포인트增, 3~4人 규모도 年率 82.9%포인트增이며, 1~2人 규모도 58.2%포인트로 伸張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후기에는 大規模 小賣業의 1店當販賣額에 따른 販賣擴大傾向을 看取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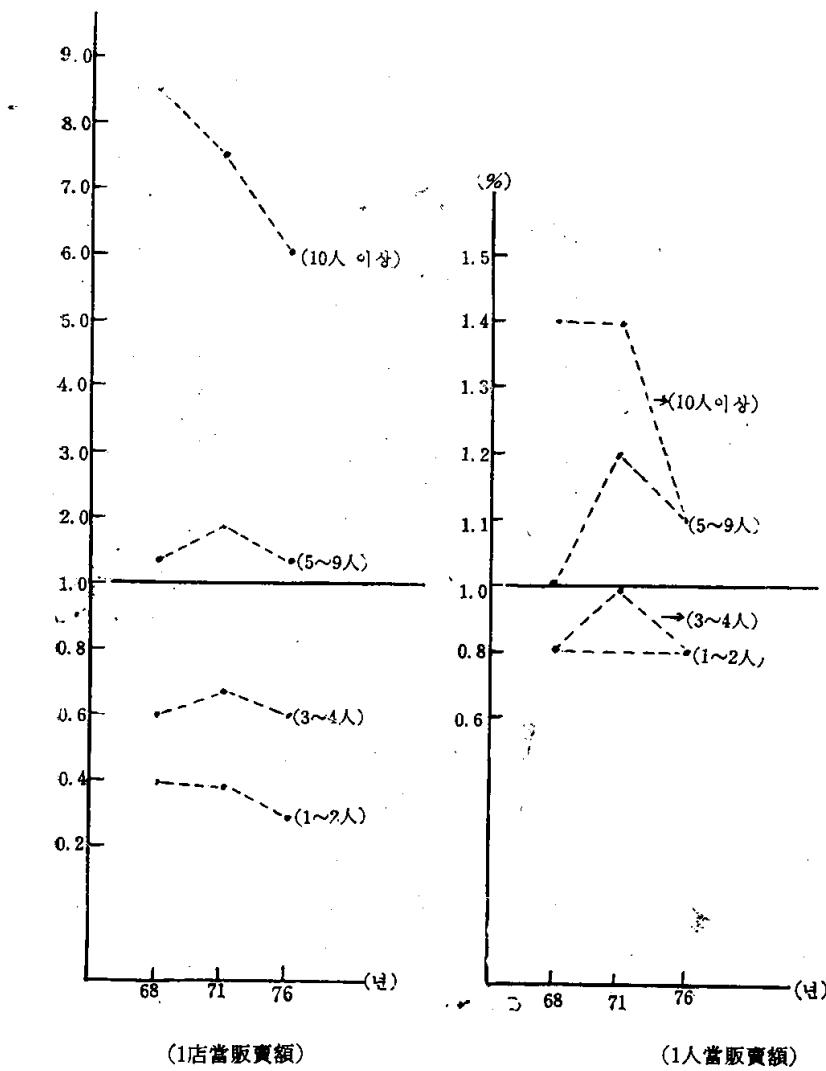
다음 1人當年間販賣額에 따른 販賣效率을 보면 76년의 경우 1~2人 규모는 平均效率과 비슷한 0.9倍의 수준에 있으며, 3~4人 규모는 1.2倍, 5~9人 규모는 1.7倍이고, 10人이상 규모는 2.0倍이다. 따라서 1~2人 규모와 10人이상 규모간의 規模隔差는 1.1倍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모격차는 68년의 5.0倍에서 71년에는 1.6倍로, 76년에는 1.1倍로 급격히 좁혀지고

〈表 5-2〉 規模別 1店當 與 從業員 1人當年間販賣額推移 (단위 : 倍,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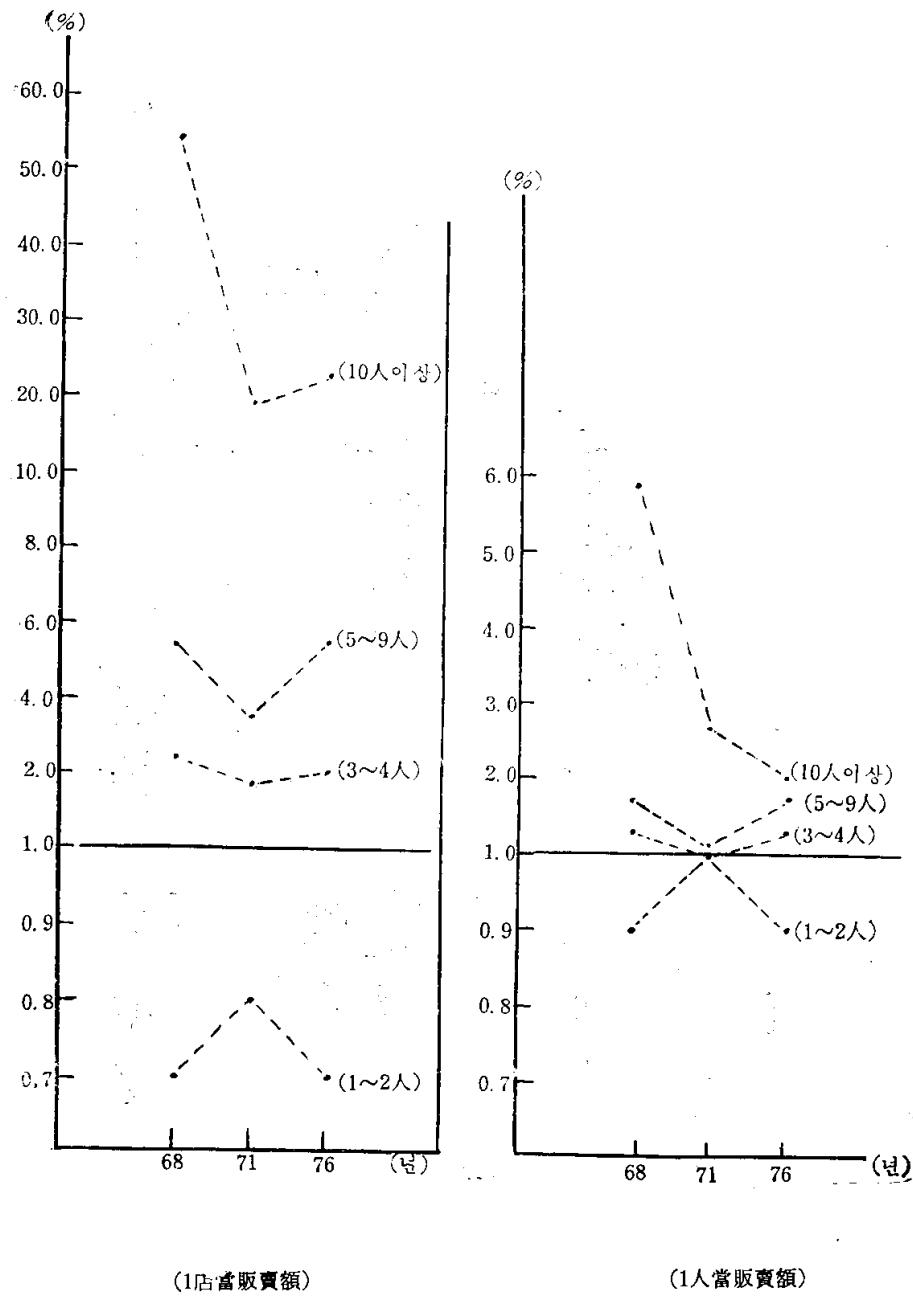
規 模 別	一 般 都 賣 業									
	1 店 當 年 間 販 賣 額			1 人 當 年 間 販 賣 額						
	68	71	76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1/68	76/71
				%	%				%	%
				71/68	76/71					
平 均	13,734 (1.0)	25,437 (1.0)	120,862 (1.0)	28.4	75.0	3,307 (1.0)	7,326 (1.0)	26,139 (1.0)	40.5	51.4
1~2人	4,844 (0.4)	10,963 (0.4)	33,854 (0.3)	42.1	41.8	2,760 (0.8)	6,565 (1.0)	21,016 (0.8)	46.0	44.0
3~4	8,374 (0.6)	17,735 (0.7)	69,242 (0.6)	37.3	58.1	2,481 (0.8)	5,594 (0.8)	20,700 (0.8)	41.8	54.0
5~9	19,682 (1.4)	44,974 (1.8)	185,608 (1.5)	42.8	62.5	3,243 (1.0)	8,099 (1.2)	30,013 (1.1)	50.0	54.1
10人이상	116,480 (8.5)	192,346 (7.6)	708,656 (5.9)	21.7	53.7	4,516 (1.4)	9,994 (1.4)	29,124 (1.1)	40.4	38.3
小 賣 業										
規 模 別	1 店 當 年 間 販 賣 額			1 人 當 年 間 販 賣 額			年平均增減率			
	68	71	76	年平均增減率		68	91	76	71/68	76/71
				71/68	76/71					
平 均	922 (1.0)	1,897 (1.0)	8,409 (1.0)	35.2	68.7	533 (1.0)	1,094 (1.0)	4,774 (1.0)	35.1	67.3
1~2人	679 (0.7)	1,555 (0.8)	6,077 (0.7)	43.0	58.2	460 (0.9)	1,030 (1.0)	4,124 (0.9)	41.3	60.1
3~4	2,058 (2.2)	3,400 (1.8)	17,840 (2.1)	22.8	82.9	636 (1.2)	1,201 (1.0)	5,547 (1.2)	29.6	72.4
5~9	4,752 (5.2)	6,476 (3.4)	47,060 (5.6)	12.1	125.3	838 (1.6)	1,298 (1.1)	7,995 (1.7)	18.3	103.2
10人이상	50,352 (54.6)	36,976 (19.5)	197,017 (23.4)	-8.9	86.6	3,147 (5.9)	2,835 (2.6)	9,581 (2.0)	-3.3	40.6

註: ()는 平均比率을 1.0으로 본 倍率임.

있는데 이는 곧 規模隔差만큼 規模의 이익이 계대로 실현되지 않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販賣效率의 伸張率을 보면 전기에는 1~2人 규모의 伸張이 가장 커서 41.3%포인트增이나 10人 이상의 규모는 오히려 3.3%포인트減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5~9人 규모가 가장 높아서 103.2%포인트增이며, 다음은 3~4人 규모의 72.4%포인트增이다. 1~2人 규모는 60.1%포인트增이고, 10人 이상의 규모는 40.6%포인트增이다. 이에서 미루어서도 10人 이상의 대규모소매업의 效率의 伸張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圖 5-1〉 販賣効率의 隔差(도매업)



〈圖 5-2〉 販賣效率의 差異(小賣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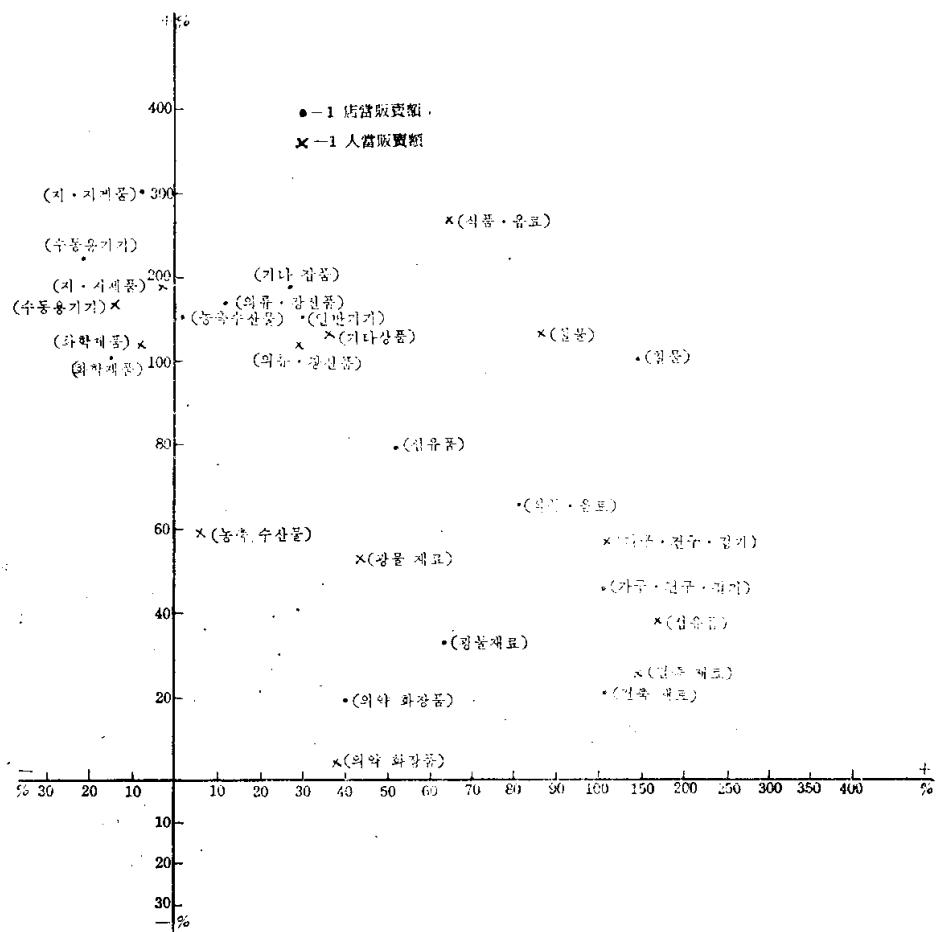
(3) 業種別 販賣效率의 推移

1店當年間販賣額 및 常時從業員 1人當販賣額에 따른 販賣效率 及 販賣生產性 内지 販賣能率의 推移를 업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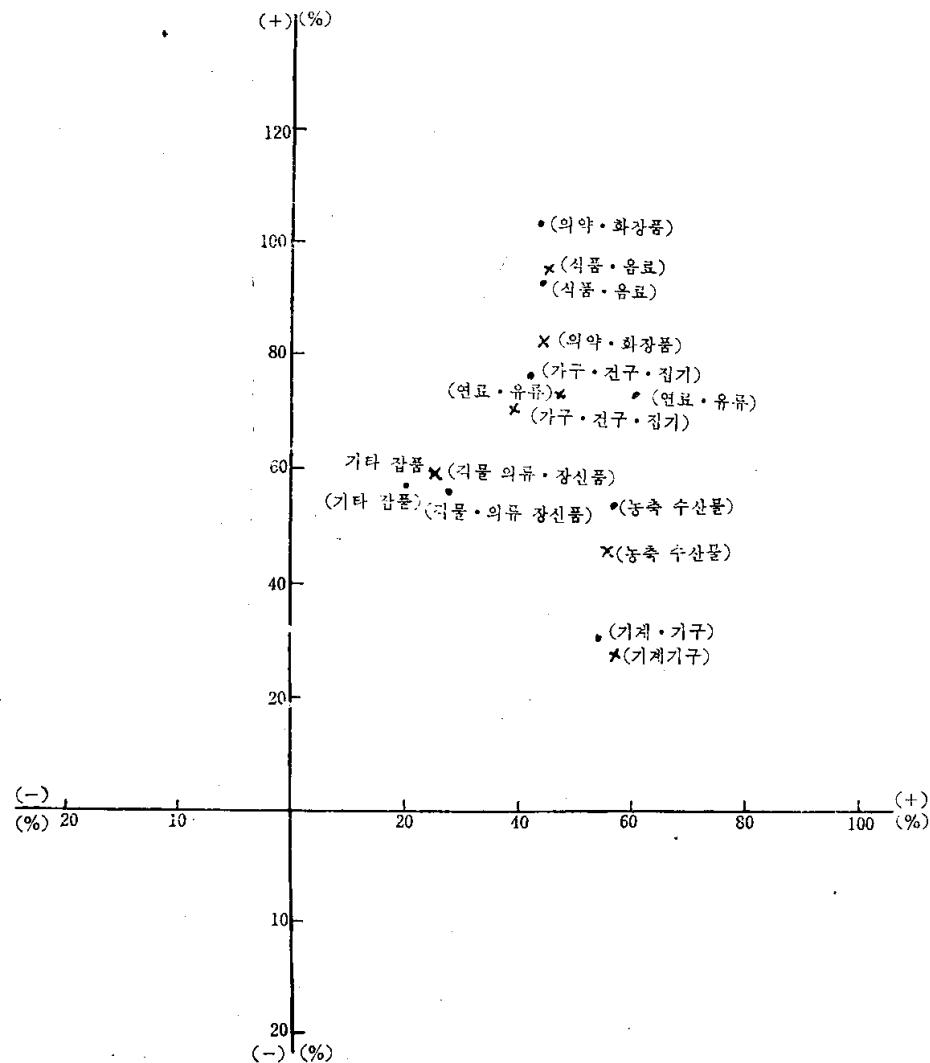
〈表 5-3〉 業種別 1店當 및 從業員 1人當年間販賣額推移 (단위 : 1,000원)

業種別	1店當年間販賣額				從業員 1人當年間販賣額					
				年平均增減率 71/68 76/71				年平均增減率 71/68 76/71		
	1968	1971	1976		1968	1971	1976			
一般都賣業	13,734	25,436	120,862	% 28.4	% 75.0	3,306	7,326	26,139	% 40.5	% 51.4
農・畜・水 產	16,225	16,875	146,049	1.3	153.1	5,715	6,847	27,135	6.6	59.3
食品・飲料	7,330	25,200	108,625	81.2	66.2	2,260	7,348	108,625	65.0	275.7
醫藥品 化粧品	27,739	61,186	120,979	40.2	19.5	3,397	7,331	8,571	38.6	3.4
化學製品	32,204	17,639	112,594	-15.1	107.7	5,761	4,234	30,220	-8.8	122.7
織維品 衣類品	14,245	36,689	182,425	52.5	79.4	2,508	15,065	43,350	166.9	37.6
裝身品	6,577	9,140	86,893	12.0	170.1	1,663	3,145	22,088	29.7	120.5
鐵物材料	30,439	88,251	235,120	63.3	33.3	5,403	12,405	44,958	43.2	52.5
一般機器	8,690	16,630	147,760	30.4	157.7	1,619	3,853	29,552	46.0	133.4
輸送用機器	29,868	9,513	117,121	-22.7	226.2	5,023	2,857	26,813	-14.4	167.7
精密機器	11,886	10,767	-	-3.1	-	1,748	2,710	-	18.3	-
電氣機器	19,430	8,864	-	-18.1	-	3,197	2,653	-	-5.7	-
建築材料	27,198	112,882	232,776	105.0	21.2	4,781	25,379	53,660	143.6	22.3
家具・建 具・什 器	7,931	32,354	106,692	102.6	45.9	1,604	6,900	26,792	110.0	57.7
鐵物	1,851	10,050	64,435	147.6	108.2	706	2,519	19,566	85.6	135.4
紙・紙製品	10,541	8,112	82,762	-7.7	306.7	2,247	2,101	22,016	-2.2	189.6
其他商品	6,359	11,547	117,776	27.2	184.0	1,715	3,569	27,589	36.0	134.6
小賣業	922	1,897	8,409	35.2	68.7	533	1,094	4,774	35.1	67.3
農・畜・水 產	1,249	3,389	11,363	57.1	47.1	739	1,960	6,551	55.1	46.8
食品・飲料	372	868	4,922	44.4	93.4	232	546	3,122	45.1	94.2
醫藥化粧品 化學製品	1,005	2,341	14,561	44.3	104.4	629	1,466	7,527	44.3	82.7
織物・衣類 裝身品	2,478	2,255	-	-3.0	-	1,372	1,219	-	-3.7	-
家具・建 具・什 器	1,177	2,122	8,045	26.7	55.8	622	1,102	4,361	25.7	59.2
機械器具 (家電製品)	1,138	2,542	12,207	41.1	76.0	600	1,299	5,910	38.8	71.0
輸送用機品	(1,146)	(3,470)	(-)	(67.6)	(-)	(612)	(2,060)	(-)	(78.9)	(-)
建築材料	(1,276)	(3,734)	(-)	(64.2)	(-)	(696)	(2,120)	(-)	(68.2)	(-)
燃料・油類	1,911	1,752	-	-2.8	-	881	1,353	-	17.9	-
其他雜品	1,499	3,922	17,810	53.9	77.4	774	1,887	9,105	47.9	76.5
綜合小賣業	1,135	1,819	7,071	20.1	57.7	641	1,062	3,901	21.9	53.6
註 : ()는 內書임.	(-)	(-)	172,921	(-)	(-)	(-)	(-)	(13,989)	(-)	(-)

業種別 1店當販賣額의 隔差를 보면 76년의 경우 가장 높은 업종은 平均效率보다 1.95倍의 수준에 있는 광물재료도매업의 2億 3,512만원이고, 그 다음은 1.93倍의 수준인 건축재료도매업의 2억 3,277만 6,000원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平均效率의 약 53%수준에 있는 鐵物도매업의 6,443만 5천원이다. 전기에 있어 이 效率이 낮아진 업종은 화학제품도매업, 輸送用機器도매업, 精密機器도매업, 電氣通信機器도매업 및 紙·紙製品도매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伸張되고 있으나 伸張率이 가장 낮은 업종은 1.3%포인트增의 農畜水產物도매업이다. 이에 대해 후기에는 모든 업종의 販賣效率이 높아지고 있는데 伸張率이 가장 낮은 업종은 19.5%포인트增의 醫藥化粧品도매업이다. 업종별로 販賣效率隔差를 보면 가장 높은 업종은 4.1倍에 이르는 食品·飲料도매업의 1억 862만 5,000원이고 다음은 2.05倍의 수준인 건축



(圖 E-3) 業種別販賣効率의 推移(도매업)



〈圖 5-4〉 著業別販賣效率의 推移(소매업)

재료도매업의 5,366만원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75%의 수준에 있는 鐵物도매업의 1,956만 6,000원이다.

增加率면에서 볼때 전기에 販賣效率이 낮아진 업종은 化學製品도매업, 輸送用機器도매업, 電氣通信機器도매업 및 紙·紙製品도매업이다.

〈表 6-1〉 業種別商品回轉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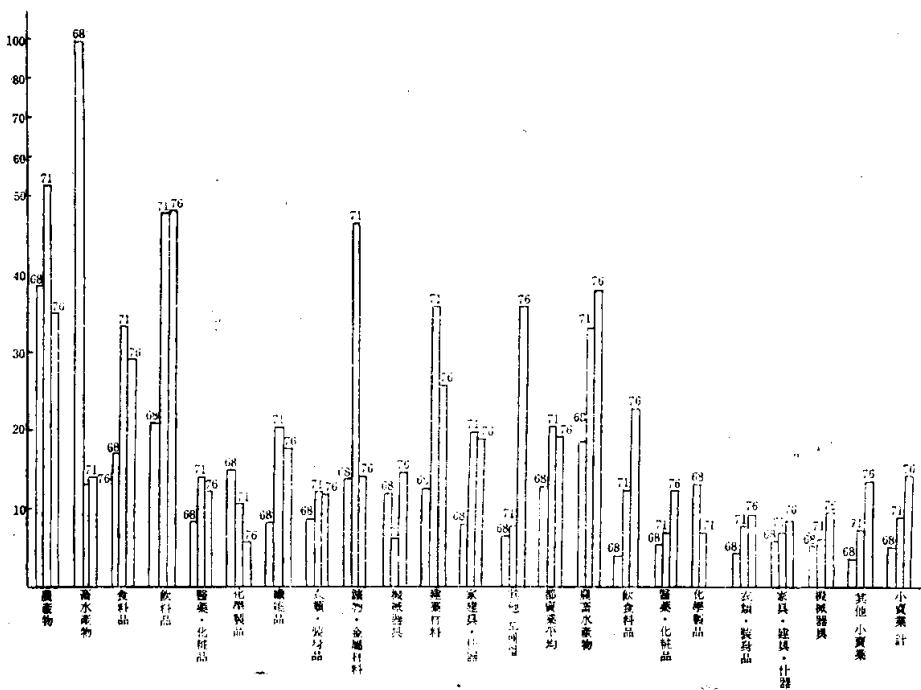
(단위 : 회)

業種別	商 品 回 轉 率				
	68	71	76	增 減	
				71	76
一般都賣業	13.2	21.7	19.8	8.5	-1.9
農產物	38.7	53.5	35.2	14.8	-18.3
畜・水產物	194.8	16.3	17.5	-178.8	1.5
食料品	13.7	33.3	28.5	19.6	-4.8
飲料品	20.8	48.4	48.9	27.6	0.5
醫藥・化粧品	8.5	13.7	12.2	5.2	-1.5
化學製品	15.5	11.1	5.9	-4.4	-5.2
纖維品	8.2	21.7	17.9	13.5	-3.8
衣類・裝身品	9.1	12.5	12.4	3.4	-0.1
鑄物・金屬材料	13.7	45.6	14.1	31.9	-31.5
機械器具	12.0	5.0	14.9	-7.0	9.9
建築材料	12.9	36.2	25.7	23.3	-10.5
家具・建具・什器	8.1	19.6	18.0	11.5	-1.6
其他都賣業	7.4	8.2	31.5	0.8	23.3
小賣業	5.6	9.5	14.7	3.9	5.2
農・畜・水產物	18.8	33.1	38.0	14.3	4.9
飲食料品	4.3	12.8	23.4	8.5	10.6
醫藥・化粧品	5.6	7.0	12.7	1.4	5.7
化學製品	13.5	7.3	—	-6.2	—
衣類・裝身品	4.7	8.0	9.7	3.3	1.7
家具・建具・什器	6.3	7.4	8.7	1.1	1.3
機械器具	5.6	6.1	10.4	0.5	4.3
其他小賣業	3.7	7.8	13.7	4.1	5.9

다음 1店當販賣額에 따른 소매업의 業種別販賣效率의 隔差를 보면 76년의 경우 效率이 가장 높은 업종은 平均效率의 2.1倍에 이르는 燃料・油類소매업이며, 다음은 1.7倍에 이르는 1,220만 7,000원의 醫藥・化粧品소매업이며, 그 다음은 1.4倍에 달하는 農畜水產物소매업이다. 이에 대해 가장 낮은 業種은 58.5%의 수준에 있는 食品・飲料소매업의 492만 2,000원이며, 그 다음은 其他雜品소매업으로서 84.1%의 수준의 707만 1천원이다. 이에서 미루어 食品・飲料小賣業 및 기타雜品小賣業의 零細性을 알 수 있다.

다음 販賣效率의 增減傾向을 볼 때 전기에 감소한 업종으로는 3.0%포인트減의 化학제품 소매업과 2.8%포인트減의 建築材料소매업이 있으며, 후기에는 모두 증대하고 있다.

1人當販賣額에 따른 業種別販賣效率의 隔差를 보면 76년의 경우 가장 效率이 높은 업종



〈圖 6-1〉 業種別商品回轉率推移

은 平均效率의 1.91倍의 수준에 있는 飲料・ 유류소매업의 910만 5,000원이며, 다음은 1.6倍의 수준인 의약・화장품의 752만 7,000원이다. 가장 낮은 업종은 65%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食品・醫藥品소매업이다.

이의 增減傾向을 보면 전기에는 화학제품소매업이 3.7%포인트만큼 감소되고 있고, 후기에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百貨店 및 수퍼마켓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을 반영하는 綜合小賣業의 1店當販賣額은 平均效率의 20.6倍에 이르는 1억 7,292만 1,000원이고, 1人當販賣額은 평균효율의 2.9倍에 이르는 1,398만 9,000원이다.

6. 商品回轉率의 推移

商品回轉率의 推移를 보면 도매업의 경우 76년에는 19.8回轉인데 이는 71년의 21.7回轉보다는 6.6回轉이 감소된 것이나 71년의 그것은 68년의 13.2回轉보다는 8.5回轉이 증대된 것이다.

업종별로 볼때 76년의 경우 回轉率이 가장 높은 업종은 48.9回轉의 飲料品도매업이며 다

음은 35.2回轉의 농산물도매업, 그 다음은 食料品도매업의 28.5回轉, 전축재료의 28.7回轉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5.9回轉의 화학제품도매업이다.

回轉率의 増減推移를 볼때 전기에 감소한 업종은 畜水產物도매업, 化學製品도매업 및 機械器具도매업이고, 후기에 감소된 업종은 農產物도매업, 畜水產物도매업, 화학제품도매업 등이다. 餘他의 業種은 모두 回轉率이 높아지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76년엔 14.7回轉인데 이는 71년의 9.5回轉보다는 5.2回轉增이며, 71년의 그것은 68년의 5.6回轉보다 3.9回轉增이다. 이에서 미루어 소매업 전체로서의 商品回轉率은 전후기 모두 증대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農畜水產物소매업의 38.0回轉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23.4回轉의 飲食料品소매업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8.7回轉의 家具·建具·什器소매업이다. 전기에 商品回轉率이 감소된 업종은 化學製品소매업이고 후기에는 모두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업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의 商品回轉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